

# 『鍼灸甲乙經』의 鍼灸文獻的 特徵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sup>2</sup>

金正浩<sup>1</sup> · 金基郁<sup>1</sup> \* · 朴炫局<sup>2</sup>

## A Study of Acupunctur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gapelgyeong(鍼灸甲乙經)』

Kim Jung-ho<sup>1</sup> · Kim Ki-wook<sup>1</sup> \* · Park Hyun-guk<sup>2</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acupunctur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the 『Chimgugapeulgyeong』 can be summarized into 7 parts such as the following.

1. After Imeok(林億)'s revised edition of the 『Gapeulgyeong(甲乙經)』 was printed during the Song dynasty, there were no reprints during the Southern Song, Geum(金) and Won(元) eras, and the first printed edition that remains today is the 'Uihakyukgyeong edition[醫學六經本]' published by Omyeonhak(吳勉學) during the Mallyeok(萬曆) era of the Myeong(明) dynasty. This publication was put into the 『Uitongjeongmaek(醫統正脈)』 collection in the 29th year of the Manlleok(萬曆) era(1601). Most of the remaining copies have been restored during the Cheong dynasty at bookstores, and we can see that much was restored because of damage and missing characters.

Also, the 'Namgyeokcho edition[藍格抄本]' and 'Yukgyeong edition[六經本]' of the Myeong dynasty do not come from the same original document, which allows the correction of the former in many places. However, this edition was not copied well, so the order of contents is different, and there are many mistakes.

The 'Sagojeonseo edition[四庫全書本]' and the 'Gajeong edition[嘉靖本]', which Yeounsu(余云岫) quoted from, coincide with each other, making them worth much reference. So, the 『Gapeulgyeong』 and 'Yukgyeong edition' should be seen as the original, with the 'Myeongcho edition[明抄本]' as the main revision, and the 'Sago edition[四庫本]' as a reference edition. The so-called 'Chojeongtong edition(鈔正統本)' has many problems and marks of forgery, so therefore cannot be used in revising the 『Gapeulgyeong』 through comparison.

2. The table of contents[序例] in the front of the current edition was in the original edition and was not added by Imeok. The structure of sentences quoted by medical books before the Song dynasty coincide with this 'table of contents'. The 『Gapeulgyeong』 of the Song dynasty also coincide with the 'table of contents' but the edition remaining differs much from this 'table of contents' so it was edited or erased by people from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after the Song

dynasty.

3. The remaining edition of 『Gapeulgyeong』 consists of at least 4 parts. The original edited by Hwangbomil(皇甫謐), annotations added by medicinal practitioners before the Song dynasty, Imeok's revisionary annotations during the Song dynasty, and annotations after the Song dynasty.

4. Expressions such as 'Somun says[素問曰]' 'Gugwon says[九卷曰]' and explanatory annotations like 'Hae says[解曰]' are old writings from the original text and were not added by someone later.

5. Almost all of the 'Double lined small letter annotations[雙行小字注文]' of the 'Yukgyeong edition' was by people during the Song dynasty.

6. There are many omitted and wrong letters in the remaining edition and there are also many places where future generations edited and supplemented the text. The table of contents differ greatly from the original text.

7. The medical books that quote 『Gapeulgyeong』 a lot are 『Cheongeumyobang(千金要方)』, 『Oedaebiyobang(外臺秘要方)』, 『Seongjaechongrok(聖濟總錄)』, 『Chimgujasaenggyeong(鍼灸資生經)』, 『Yuyusinseo(幼幼新書)』, and 『Uihakgangmok(醫學綱目)』and such. However, the method used in using the text differs between the medical books, so the quotation from the same book comes from a quotation used by a doctor from a different era in one(『Cheongeumyobang』), or the quotation was taken from each medical book(『Chimgujasaenggyeong』) or the quotation was all taken from another book(『Yuyusinseo』).

The reason we need to know about this problem properly is because we must use medical books that quote the original text of the 『Gapeulgyeong』 when we are looking for text that we can use to revise through comparison.

**Key Words** : Chimgugapeulgyeong(鍼灸甲乙經), Hwangbomil(皇甫謐), Imeok(林億), 'Yukgyeong edition(六經本)', 'Myeongcho edition(明抄本)', 'Sagojeonseo edition(四庫全書本)', 'Chojeongtong edition(鈔正統本)', The table of contents(序例)

## I. 序論

침구의학의 기원은 매우 오래 되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침구학에 관한 문헌은 무수히 많다. 新版 『中醫圖書聯合目錄』에 수록된 鍼灸古籍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곤 모두 약 160여 종<sup>1)</sup>이고 이 이

외에도 수십 종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鍼灸古籍의 학술적인 가치는 어떠하며, 신뢰도는 어떠하며, 얼마나 많은 僞書가 있으며, 망실된 침구 문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침구문헌 연구와 침구의학사 연구의 전제가 된다.

현존하는 鍼灸醫籍 가운데 대부분은 前代 의서를 베껴거나 전대 문헌을 모으고 분류하여 편찬한 것으로 엄격한 의의에서 논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자료들은 침구학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몇몇 문헌을 제외하곤 이

\* 교신저자 :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08년 12월 10일), 수정일(2009년 2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1) 薛清錄 主編. 中醫圖書聯合目錄·鍼灸推拿.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pp.128-154. "No 01745 鍼灸甲乙經

十二卷~No 02195 桑柴煙熏法까지 실린 450종 鍼灸專籍가운데 중복된 부분을 제외함"

미 망실된 침구문헌을 보존하지도 못하였다. 이의 존재 가치는 침구서가 없었던 당시에 침구지식의 전파에 상당히 기여한 점이다. 이와 같은 침구서는 각 왕조에서 모두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明末 이후의 침구서에서 이러한 정황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고대 침구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시대적인 특징 및 유형에 따른 침구문헌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본초문헌은 각 시대별로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대량의 중복을 피하였지만, 역대 鍼灸腧穴書는 대부분 여러 책에서 모아 조합하거나, 혹은 甲穴은 이 책에서 乙穴은 다른 책에서 베끼고, 혹은 수혈 부위, 주치증, 灸刺法을 인용한 책이 각기 다르고 또한 대부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침구학에 대한 개념은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그 의미가 확충되거나 변천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시대의 사상마다 시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사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먼저 사료의 시대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침구학을 대표할 수 있고 후세에 영향을 끼친 침구지식을 선별하여 탐색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漢代 이전 및 한대 침구문헌에서는 經脈, 手足腕踝部의 脈口, 12‘經脈穴’이 같은 명칭인 ‘三陰三陽’으로 명명하였고, 경맥의 명칭, 수량, 순행노선, 순행방향 및 경맥병후에 있어서 여러 설이 병존하였으며, 나중에 『靈樞·經脈』의 편자가 한대 이전의 각종 경락학설을 종합하고 새로운 이론의 틀에 따라 다시 새롭게 개조하여 후세 경전 이론으로 되었다.

『鍼灸甲乙經』의 전체 이름은 『黃帝三部鍼灸甲乙經』(이하 『甲乙經』이라 簡稱함)은 12권으로 되어 있으며, 『素問』, 『九卷』, 『明堂』 등 古醫經에서 분류 수집하여 만들었다. 현행본에 기재된 「自序」에 의하면 이 책은 皇甫謐이 편집하고 魏·甘露(256~259) 연간에 成書되었다. 이 책을 최초로 기재한 서목은 梁·阮孝緒 『七錄』(梁·普通 4년 AD 523년에 편찬)이고 최초로 『甲乙經』을 인용한 의서는 5세기 중엽 『小品方』인 것으로 알려졌다. 敦煌에서 출토된 『甲乙經』

殘卷(No: P3481)<sup>2)</sup>에는 唐太宗의 이름을 避諱하지 않아 貞觀시기 이전에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존하는 최초의 『甲乙經』 실물 단편이다.

현행본 『鍼灸甲乙經』은 明·萬曆시기 吳勉學이 펴낸 ‘『醫學六經』本’과 ‘明·藍格抄本’의 두 가지가 판본이 있다. 明末, 淸初의 의서에서 인용한 『甲乙經』은 모두 이 두 전본에서 나왔다. ‘六經本’이 후에 ‘『醫統正脈全書』本’에 수록되어 이 책이 널리 유전되었으나, 『醫學六經』은 도리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명대 이후 간각된 『甲乙經』 또한 대부분 ‘『醫統正脈全書』本’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전 사람들은 ‘醫統本’을 명대 이후 각종 『甲乙經』의 祖本으로 여겼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sup>3)</sup> 침구의학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醫籍인 『鍼灸甲乙經』에 관한 편자, 판본, 기본 구성, 편집 체제, 오류의 분석, 인용 의서 등에 관한 침구문헌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편자 및 개요

『隋書』 「經籍志」에는 작자를 밝히지 않았고<sup>4)</sup>, 『舊唐書』 「經籍志」에는 ‘皇甫謐撰’<sup>5)</sup>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唐代 초기에 楊上善, 楊玄操는 『甲乙經』

- 2)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31.
- 3)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鄧良月,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證治通鑒. 膠南. 青島出版社. 199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高橋征司, 篠原孝市. 皇甫謐著鍼灸甲乙經解題 鍼灸醫學典籍大系(卷1).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 53[1978]. 篠原孝市. 甲乙經總說東洋醫學善本醫學叢書(第8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 4) 長孫無忌 著.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者. 隋書經籍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4.
- 5) 劉昫 撰.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者. 舊唐書經籍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5.

의 편자가 皇甫謐임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성서된 『晉書』 「皇甫謐傳」에 皇甫謐의 생전 저작을 열거하였지만<sup>6)</sup> 당시 큰 영향을 끼친 『甲乙經』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唐代 사람들은 皇甫謐을 『甲乙經』과 서로 연계시키거나 혹은 이 책 서문의 제목 이름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傳世本 『甲乙經』 「序文」과 皇甫謐이 저작한 『帝王世紀』에서 상관되는 문자를 대조해 보면 양자는 서로 부합하지 않아 『甲乙經』의 「서문」이 皇甫謐의 손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문헌의 편상 이하 『甲乙經』의 편자를 ‘皇甫謐’이라 해둔다.

全書는 모두 12권 12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편 6편에서는 침구학의 기본 이론을 논술하고 있으며 후편 6편은 침구 임상치료 부분으로 임상각과 질병의 病因, 病機, 證狀과 俞穴主治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분 임상각과의 기초와 완전한 학술체계의 계통과 침구전문 저작을 갖추고 있다.

권1은 인체의 五臟六腑, 精神魂魄, 榮衛氣血, 精氣津液의 생리기능과 작용에 대하여 총론적인 논술을 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臟腑와 肢體 五官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本卷에서는 「내경」의 臟象學說의 주요 내용을 채취하여 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밝히고 있다. 五臟을 중심으로 오장의 생리기능과 五臟六腑, 經脈, 精神, 五志, 五時, 五行, 五色, 五味 등과의 관계와 아울러 天人相應, 比類取象의 방법을 도입하여 인체의 생리 병리적 현상을 밝히고 있다. 이편은 침구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며 또한 의학에 있어 基礎整體觀을 설명하고 있어, 계통적으로 침구학의 기본체계를 확립하였다.

권2는 12經脈, 奇經8脈, 12經標本, 經脈根結, 經筋 등의 순행노선, 발병정황 등을 논술하였고, 腸度, 脈度, 骨度, 腸胃所受 등을 언급하였다. 本勸은 『靈樞』의 논술을 위주하여 經脈系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을 천발하고 있다.

권3은 俞穴主治를 논술하고 있다. 모두 349개의 俞穴을 정하였고(그 가운데 49개의 單穴, 300개의

雙穴, 합계 349穴이다. 기타 자료에 수록된 경혈의 숫자는 차이가 있고, 이를테면 『中國醫籍提要』에서는 654혈이 기재되어 있음), 각혈들의 부위, 자침의 깊이와 뜸의 장수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특징적인 논술은 인체의 穴位가 소재한 부위를 모두 35조목의 노선과 구역을 나누었고, 부분, 구역, 노선을 나누어 穴位의 위치와 주치를 논술하였다. 비록 經脈에 따라 穴位를 논술하지는 않았지만 局部의 穴位를 분명하게 논술하여 실용적이며, 후세에 ‘經에 따라 穴을 논술한 방식’의 특징을 남기게 되었다.

권4는 診法을 總論하고 있다. 하나인 經脈을 논술하였지만, 상중하 3편으로 나뉘어 있다. 상편은 人迎氣口의 變化와 疾病輕重의 관계를 논술하였고, 平脈, 病脈, 死脈을 구별하였다. 중편에서는 胃氣와 診法虛實의 중요한 가치 그리고 有餘와 不足의 脈象과 經脈厥症의 변증을 밝혔다. 하편에서는 色脈, 形氣, 虛實 등 脈證의 변증법과 五逆, 五實, 五虛의 脈證과 아울러 五臟脈象이 所主하는 病症에 근거하여 病機와 預後를 설명하고 있어, 三陰三陽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病形과 脈診에 관한 2론과 상하 2편으로 구분된다. 상편은 인체 장부경락의 부위가 같지 않아 질병이 침습함에 그 위치가 높고 낮음 음양의 구별이 있음을 논술하였고, 아울러 色, 脈, 尺膚의 관계를 논술하였다. 하편은 五臟 6種의 脈象이 주관하는 病證과 刺鍼의 방법을 논술하였다. 三部九候 一篇에서는 三部九候의 部分과 진찰 방법을 논술하였다. 본권은 脈診을 위주로 評論하였으며, 동시에 色診을 論述하고 聞診과 問診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각종 진단방법의 상호 연계와 실제 임상에서의 四診合參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권5는 鍼道에 관한 총론이다. 침구 임상상의 금기를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9종류의 鍼具의 기원, 의의, 형상, 적응 부위와 조작 방법 그리고 用鍼의 요령, 持鍼 방법, 자침 補瀉 기법 및 그 작용, 서로 다른 유형의 환자들에게 맞추어 채택하는 기법 등 전면적으로 임상에서 운용되는 鍼灸의 技巧를 밝히고 있다.

6) 景仁文化社 編, 晉書(卷51)·列傳第二十一·皇甫謐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1417-1418.

권6은 기초 이론의 雜論이다. 五臟, 陰陽을 중심으로 하여, 인체의 각종 생리·병리 현상 가운데 인체 陰陽, 五臟과 자연계 물질, 현상 간의 관계, 五臟 五行이 질병 예후를 예측하는 작용을 논술하고 있으며, 동시에 發夢, 形과 氣의 盛衰, 장수와 요절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기초와 임상적으로 귀납하기 불편한 현상을 해석하여 밝히고 있다.

권7에서 권12까지는 임상 치료 부분이다. 內, 外, 婦, 兒, 五官 각과 질병의 임상 표현과 치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내과를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내과와 五官의 병은 모두 43편으로, 그 중 外感病에 속하는 것이 6편, 內傷雜病이 32편, 五官病이 5편이며, 주로 六淫, 七情 및 기타 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초래하는 五臟病, 六腑病, 經脈病, 五官病 등 100종류 이상의 병증을 논술하였다. 外科病 3편은 약 30종 병증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癰疽에 대한 논술이 비교적 상세하다. 婦人科 1편은 약 20종의 婦人科 질병을 언급하고 있는데, 임신부가 9개월째 말을 하지 못하는 瘖證에 관한 病因, 妊婦 脈象, 산후 열병의 예후와 진단 및 기타 婦人科 잡병을 주로 논술하였다. 兒科 1편은 약 10종의 병증을 언급하고 있는데, 小兒 驚氣와 간질, 癲癩, 飧泄, 食晦, 臍風 등의 병증을 주로 논술하였다. 치료 방법에서는, 全書에서 짚 이전 및 皇甫謐 자신이 직접 임상에서 각종 질병을 침구 치료한 풍부하고도 진귀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俞穴 主治 800 여 조항으로 짚 이전의 침구 치료의 학술 성취를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침구 치료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2. 판본

송대에 교정한 原刊本의 『甲乙經』은 熙寧 2년(1069)에 간행되었으나, 북송 이후 南宋, 金, 元시기에 南宋·尤袤의 『遂初堂書目』에 ‘甲乙經’이라 기재한 것 이외에 기타 서목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당시 의서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아마 『甲乙經』은 이 시기에 중단되지 않았고 다시 찍지도 않아 전세된 것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본은 주로 두 가지로 하나는 明·萬曆시기 吳

勉學이 펴낸 ‘『醫學六經』本’(이하 ‘六經本’이라 칭함)이고, 하나는 ‘明·藍格抄本’(이하 ‘明抄本’이라 칭함)이다. 明末, 清初의 의서에서 인용한 『甲乙經』은 모두 이 두 전본에서 나왔다. ‘六經本’은 이후에 『醫統正脈全書』本에 수록되어 이 책이 널리 유전되었다. 『醫學六經』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대 이후 간각된 『甲乙經』은 대부분 『醫統正脈全書』本(이하 ‘醫統本’이라 간칭함)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전 사람들은 ‘醫統本’을 명대 이후 각종 『甲乙經』의 祖本으로 여겼다.

### 1) 北宋 刊本

이 판본은 북송 校正醫書局 林億 등의 교주본으로 熙寧 2년(1069)에 간행되었다. 原本은 일찍이 실전되었고 清代에 모사한 ‘北宋本’이 아직 있었는데, 清·毛扆의 『汲古閣珍藏秘本書目』에 “『甲乙經』六本, 從宋板影抄”<sup>7)</sup>라 적혀 있고, 清·朱學勤의 『結一廬書目』에 “『甲乙經』十二卷, 計六本. 晉·皇甫謐撰, 影寫北宋刊本”<sup>8)</sup>이라 기재되어 있다. 지금 ‘宋抄本’을 모사한 것은 행방이 불명하다.

### 2) 明·萬曆시기 吳勉學의 ‘『醫學六經』本’

#### (1) 『醫學六經』의 舊題

明代 顧從德이 엮고 吳勉學이 明·萬曆 시기에 펴냈다. 그러나 자료의 기재를 볼 수 없고 顧氏가 편집하였거나 혹은 습간한 것에 여섯 醫經이 있다. 아마 吳勉學이 펴낸 『醫學六經』 가운데 첫 部인 『素問』이 顧從德이 宋本을 모사하여 복각하였기 때문에 6종 의서를 顧氏의 것으로 돌렸다. 吳氏가 판각한 『醫學六經』에 수록된 『甲乙經』<sup>9)</sup>은 新刻本으로 기타 『素問』, 『脈經』 등 복각한 舊本과는 다르다.

‘六經本’의 底本은 ‘宋校本’이 돌아다니면서 초록된 것으로 脫文, 錯簡, 訛傳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毛扆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汲古閣珍藏秘本書目·子部·醫家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0.
- 8) 皇甫謐 撰. 黃龍祥, 嚴康維 校注. 鍼灸甲乙經·鍼灸甲乙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43.
- 9)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鍼灸醫學典籍大系(卷6, 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2) 脫文

『甲乙經』이 송대에 “簡編脫落者已多”<sup>10)11)</sup>하였지만 보다 많은 脫文이 오히려 송대 이후에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甲乙經』 가운데 9조의 수혈주치 문자는 ‘六經本’에 나타나지 않고 『外臺秘要』, 『聖濟總錄』에서 인용한 『甲乙經』에 나타난다. 또한 ‘明抄本’에도 4조의 수혈주치가 ‘六經本’에 나타나지 않고 탈문이 많다. 이로써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

(3) 錯簡

『甲乙經』의 착간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여 현행본에 수록된 『素問』, 『九卷』의 문장이 전세본 『內經』, 『太素』 조문의 차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그 중에 일부는 착간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권7에서 권12에 이르는 일부 편 속에 수혈주치 조문의 차서가 뒤섞여全书의 통례와 부합하지 않아 착간이 분명하다. 그 가운데 일부 착간은 송대 이후에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권12 血溢發衄 제7 ‘水溝主之’ 조문이 ‘齧交主之’ 뒤에 있어<sup>12)</sup> 『甲乙經』 수혈 배열의 「序例」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聖濟總錄』 권193<sup>13)</sup>에 이 편을 인용하였는데, ‘水溝主之’가 ‘齧交主之’ 앞에 있어 현행본 『甲乙經』의 이 조문은 송대 이후 베끼는 과정에서 착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六經本’ 권10 제1에서 “足大指搏傷, 下車控地, 能背指端傷, 爲筋痹, 解谿主之”<sup>14)</sup>를 편의 끝 즉 ‘至陰主之’ 뒤에 두었는데 이는 『甲乙經』의 통례와 부합하지 않아 착간되었음이 틀림없다. ‘明抄本’에 기재된 ‘解溪主之’

가 ‘巨虛上廉主之’ 조문 앞에 있어 『聖濟總錄』 권192에 이 편을 인용한 것과 같고 『甲乙經』 수혈 배열의 「序例」과 부합하여 ‘六經本’에서 이 조문의 착간도 송대 이후 전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注文이 本文에 섞임

송대에 교정하기 이전에는 『甲乙經』은 손으로 베낀 것이 유전되었고, 고인이 초록할 때에 본문 옆에 注文을 달았다. 게다가 초본에 大, 小字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과 본문이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권2 제1 「十二經脈絡脈支別下」篇의 “足太陰之正則別上至脾合於陽明與別俱行……”<sup>15)</sup> 구절에서 ‘則別’은 ‘即別’과 뜻이 같고 古注文이다. 『靈樞經』 초기 전본 가운데 12경 經別의 기재에 관하여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 12경 모두 ‘正’이라 칭하였다. 둘째, 陽經은 ‘正’이라 하고 陰經은 ‘別’이라 칭하였다.

전세본 『甲乙經』에서는 12경을 모두 ‘正’이라 칭하였는데, 고인이 베낄 때 이 글자 아래에 ‘則別’이나 ‘別’자로 주를 달았다. 또한 권9 제9에서 “三焦病者, 腹脹氣滿, 少腹尤甚堅……”<sup>16)</sup>이라 하였는데, ‘甚’자가 『脈經』, 『太素』, 『靈樞』에는 없으며, 楊上善의 주에서 “尤, 甚也”<sup>17)</sup>라 하여 이 글자가 古注文임을 알 수 있다.

송대 이후에도 손으로 베낀 『甲乙經』이 유전되었고, 베끼는 과정에서 주문이 본문에 뒤섞여 들어간 것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권1 제8에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怫鬱也然不知其所病……”<sup>18)</sup>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鬱也’는 『太素·四海合』에는 注

10)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新校正黃帝鍼灸甲乙經序鍼灸醫學典籍大系(卷6).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3.  
 11)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鍼灸甲乙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873.  
 12)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十二)·血溢發衄第七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216.  
 13) 趙佶 編. 聖濟總錄 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217.  
 14)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十)·陰受病發痹第一(下)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41.

15)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下) 鍼灸醫學典籍大系(卷6).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03.  
 16)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九)·三焦膀胱受病發少腹腫不得小便第九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19.  
 17)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1)·腧穴.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84.  
 18)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一)·四海第八 鍼灸醫學典籍大系(卷6).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38.

文이고 ‘明抄本’도 같아 이러한 오류는 송대 이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착오는 ‘六經本’에도 그 예가 적지 않다. 小字注文을 大字本文으로 오인한 중요한 원인은 주문 앞에 표시하는 문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六經本’에는 ‘千金云’의 注文을 빼고 모두 대자로 배열시켜 본문과 서로 섞였다. 어떤 小字注文 가운데에는 절반의 문자가 대자로 잘못 적어 본문과 서로 뒤섞였다. 예를 들어 권9 제2 “心膨膨痛(『千金』에는 煩悶亂으로 되어 있음), 少氣不足以息, 尺澤主之”<sup>19)</sup>에서 ‘少氣不足以息’은 원래 注文(『醫學綱目』 권16에 나타남)으로 소자로 배열해야 한다. 권7 제1 下의 “目痛引眦, 少腹偏痛, 背(一作脊)僵, 癭癭, 視昏嗜臥, 照海主之”<sup>20)</sup>에서 ‘背(一作脊)僵’가 ‘明抄本’과 『醫學綱目』에서는 모두 ‘(眦, 一作脊), 嘔’로 되어 있다. 이 주문은 원래 앞 문장인 ‘目痛引眦’의 ‘眦’자에 대한 주문인데, 오늘날 ‘六經本’에서는 ‘眦’자를 ‘背’로 오기하고 대자로 배열하여 본문에 잘못 넣었다. 아래 글인 ‘嘔’자와 이어져 뜻이 순조롭지 못하자 마침내 ‘嘔’를 ‘僵’로 고침으로써 착오에 착오를 거듭하였다. 이밖에 권11 제2, 권12 제10편과 같은 일부 편의 小字注文은 대부분 大字注文으로 잘못 찍어졌지만 『聖濟總錄』,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宋本의 상응하는 조문에는 小字注文으로 되어 있어 그 잘못은 역시 송대 이후이다.

전초의 잘못 이외에 ‘六經本’에는 후인이 함부로 고치고 보충한 곳을 대량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대 ‘藍格抄本’ 『甲乙經』 권2 제1에 기재된 12 경맥의 이름 앞에 모두 상응하는 장부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 ‘手太陰之脈’<sup>21)</sup> 등과 같은 것은 『千金要方』에서 林億이 인용한 宋本이나, 明·天德시기 楊珣의 『鍼灸集書』에서 인용한 明代 전본인 『甲乙

經』과 같다. 그러나 ‘六經本’에서 12경맥의 이름 앞에 모두 臟腑의 이름을 붙인 ‘肺手太陰之脈’ 등은 『靈樞經』, 『黃帝鍼經』과 같다. 또한 『太素·衝脈』 권10 楊上善의 주에서 “皇甫謐錄『素問』云：衝脈起於氣街, 併陽明之經, 夾臍上行, 至胸中而散”<sup>22)</sup>, “皇甫謐錄『素問經』：任脈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上關元, 至咽喉”<sup>23)</sup>라 하였고, 『素問·骨空論』의 新校正에서는 『甲乙經』을 인용하고 양상선의 주와 합하였다.

그러나 ‘六經本’ 권2 제2에는 衝脈의 순행이 “并少陰之經”<sup>24)</sup>으로 되어 있고 注에서 “『難經』作陽明之經”<sup>25)26)</sup>이라 하였으며, 任脈의 순행이 끝나는 곳에 “上頤循目入面”<sup>27)</sup> 6자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송대 이후 사람이 『素問』에 의거하여 고친 것이다. 지금 ‘六經本’에서 고친 글을 보면 대부분 『內經』을 수록한 글과 권3의 腧穴 부분에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권7~권12에는 『明堂』의 수혈주치에서 따온 문자를 고친 것은 비교적 적다. 아마 이 부분의 문자는 고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체례 방면에 있어서 ‘六經本’과 원서의 ‘序例’가 차이가 상당히 커서 원본의 옛 모습을 거의 잃었다.

### 3) 『醫統正脈』本과 영인본

『醫統正脈』(지금은 대부분 『古今醫統正脈全書』라 칭함)이라는 대형 총서는 吳勉學이 萬曆 29년에 수집하여 완성시켰다. 이 책에 실린 앞 여섯 부의 의서 즉 『醫學六經』 6종은 양자가 같은 판이다. 주의할

19)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九)·寒氣客於五臟六腑發卒心痛胸痺心疝三蟲第二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95.

20)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七)·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下)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29.

21) 張燦理, 徐國仔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2)·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73.

22)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0)·衝脈.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42.

23)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0)·任脈.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38.

24)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二)·奇經八脈第二 鍼灸醫學典籍大系(卷6).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105.

25)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二)·奇經八脈第二 鍼灸醫學典籍大系(卷6).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p.105-106.

26)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骨空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70.

27)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骨空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70.

점은 『醫統正脈』 원판의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고 여러 차례 인쇄되었다.

최초의 新安 吳勉學 師古齋 초간본은 볼 수 없다. 師古齋 원판은 후에 金陵 五車樓에 수장되었고 明末, 淸初에 각기 한 차례 간행되었으며, 이 두 종의 인쇄본은 현존하고 있다. 그 후 이 판본은 또한 映旭齋에 귀속되었다. 이때에 원판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步月樓에서 다시 고쳐서 원판에 있던 彭好古의 「서문」을 사색하여 淸대 중기에 다시 간인하였다. 書目에 기재된 이른바 ‘明版’ 『醫統正脈』은 대부분 최후에 판을 소장한 책방에서 나왔고 步月樓에서 重修한 후 淸대에 간인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인쇄를 몇 번 거침으로써 옛 판이 쪼개지고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인쇄본에 斷版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판이 심하게 쪼개진 것이 적지 않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옛 판에 의거하여 다시 새겼다.

예를 들어 中國中醫研究院에 3부의 ‘明版’ 『醫統正脈』(2부는 步月樓에서 梓行하였고, 1부는 刊刻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과 1부의 ‘明版’ 단행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고찰을 통하여 모두 淸代 重修本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斷版 현상과 빠진 글자가 상당히 많고 아울러 비교적 많은 補版을 볼 수 있다(특히 후반부에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重修本’에는 모두 원판에 있었던 彭好古의 「서문」을 실지 않았는데, 권 첫머리에 있는 ‘王肯堂輯’<sup>28)</sup>을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明版’은 『甲乙經』을 교감하는 底本으로 삼기 어렵다.

현재 통행하는 『甲乙經』 영인본은 ‘醫統本’을 채용하였다<sup>29)</sup>. 그러나 원본에서 빠진 글자는 『內經』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이밖에 淸代 印本인 ‘醫統本’의 단행본은 빠진 글자와 보완한 글자가 明刊 叢書本과는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叢書本 권 10 제7 版B면 마지막 줄 끝 글자가 ‘則’(原刊本과 重修本도 마찬가지로 임)으로 되어 있어 ‘六經本’과 같지

만 단행본은 이곳을 보완한 글자가 ‘關’으로 되어 있어 영인본과 같다. 아마 이 영인본도 여러 부를 이용하여 인쇄할 때에 다른 ‘『醫統正脈全書』本’과 병합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원서의 테두리[板框]를 줄여서 인쇄하였기 때문에 원서에서 보충하거나 판을 메운 것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甲乙經』을 교감하는 저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4) ‘明·藍格抄本’

淸代 장서가인 陸心源의 『皕宋樓藏書記』에 明·藍格抄本 『黃帝三部鍼灸甲乙經』이 기재되어 있으며 책의 말미에 “熙寧二年四月二十三日進呈, 奉聖旨樓版施行”<sup>30)</sup>이라는 문구가 있고 뒤에 富弼, 趙抃 등의 관직명을 나열하였다.

이밖에 戴霖, 朱筠의 跋文을 실었다. 陸氏의 장서는 훗날 일본으로 팔려갔는데, 이 판본도 그 속에 들어 있었고 현재 日本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1년에 일본 오리엔트출판사에서 이 판본을 영인하여 출판하였다(『東洋善本醫學叢書』 第7輯). ‘明藍格抄本’(이하 ‘明抄本’이라 칭함)과 ‘六經本’은 기원이 같은 宋校本에서 나왔지만 양자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는 아마 송대 原刊本이 줄곧 重刊, 重印되지 못했고, 송대 이후에는 주로 손으로 베끼는 것에 의거하여 유전되었기 때문에 傳抄가 거듭됨에 따라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明抄本’과 ‘六經本’이 현저하게 구별되는 첫 번째는 이 판본에는 대량의 注音 문자가 있지만(글에 따라 주를 붙이거나, 혹은 문단 뒤에 집중적으로 주를 달기도 함) ‘六經本’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자는 『聖濟總錄』,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宋本 『甲乙經』에도 보이지 않아, 송대 이후 사람들이 베끼는 과정에서 혼독의 편의를 위해 보충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黃帝와 岐伯의 문답체례가 다르다. 세 번째는 ‘六經本’에서 흔히 나타나는 雙行 小字夾注가 ‘明抄本’에서는 大字로 되어 있고 칸을 바꾸어 한 칸 아래에 두었다.

注音 문자 이외에 ‘明抄本’에는 또한 ‘六經本’에

28) 王肯堂 彙輯. 鍼灸甲乙經 醫統正脈全書(卷3). 台北. 新文風出版公司印行. 1975. p.표지.

29) 高橋征司, 篠原孝市. 皇甫謚著鍼灸甲乙經解題 鍼灸醫學典籍大系(卷1).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53[1978]. p.109.

30) 皇甫謚 著. 篠原孝市 編. 古鈔本鍼灸甲乙經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221.

는 나타나지 않는 일부 注文이 있다. 그 중에 권7~권12에 수록된 『明堂』 수혈주치 조문(이 부분의 원문에 대해 후인이 증보시킨 주문일 가능성은 비교적 적음) 가운데 22조의 注文은 ‘六經本’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22조의 주문에서 10조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하였다. 이로써 ‘明抄本’에서 ‘六經本’에 나타나지 않는 일부 주문(釋音 주문은 제외하고)은 대체로 宋本의 舊注이지 후인이 補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六經本’ 주문이 ‘明抄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대부분 宋本의 舊注이기도 하다.

‘明抄本’과 ‘六經本’의 차이에 관하여 주의할만한 현상은 ‘明抄本’ 가운데 일부 異文은 ‘六經本’ 注文에서 ‘一本作×’라 주석한 것과 서로 부합한다. 예를 들어 ‘明抄本’ 권8 제2 “不能句(一作拘)積而止之, 故往來移行腸胃之外……”<sup>31)</sup> 구절에서 ‘不能句(一作拘)’가 ‘六經本’에서는 “不能拘”<sup>32)</sup>로 되어 있다.

때로는 두 본의 本文과 注文이 전도되기도 하였다. ‘六經本’ 권6 제2 “形苦志苦, 病生於咽喝(一作困竭)……”<sup>33)</sup> 조는 ‘明抄本’에서는 “形苦志苦, 病生於困竭(一作咽喝)”<sup>34)</sup>로 되어 있어 『素問』 「血氣形志」 新校正에서 인용한 『甲乙經』과 같다. 이밖에 ‘六經本’에서 일부 異文도 ‘明抄本’ 注文 가운데 ‘一本作×’라 한 것과 같다. 이 두 가지 다른 본이 전초하는 과정에서 또한 別本에 의거하여 서로 교정하였음을 나타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권7~12에 수록된 『明堂』 부분에는 단지 3례만 나타나 기타 부분보다 적다. 초록할 때에 別本에 의거하여 對校하였다면 두 판본에서 이 부분의 문자에 차이가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없다. 이러한 주문이 송대 이후

사람이 閱讀할 때에 함부로 가하였다면 別本에 의거하여 對校할 때에도 『素問』, 『靈樞』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甲乙經』에 수록된 『內經』에 대한 注文이 『明堂』부분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明抄本’은 앞뒤의 체례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권5 앞에는 기타 각 권과는 달리 목록이 없다. 권1 앞에 “晉玄晏先生皇甫謐集：朝散大夫守光祿卿直秘閣判登聞檢院上護軍臣林億……臣孫奇等”<sup>35)</sup>이라 기술한 7줄이 있지만 기타 각 권에는 단지 ‘晉玄晏先生皇甫謐集’ 한 줄로 되어 있다. 권9 뒤쪽 주문은 대부분 大字로 되어 있다. 권2 本文에서 ‘問’, ‘對’의 예는 원서의 「序例」와 부합하지만 다른 권의 예는 다르다. ‘明抄本’도 ‘醫統本’과 마찬가지로 송대 원간본의 옛 모습을 상당히 잃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거한 저본이 ‘六經本’과 다르고 脫誤된 곳은 종종 ‘明抄本’에 의거하여 補正할 수 있다.

또한 “清代 張金吾의 『愛日精廬藏書志』에 ‘明初抄本’이라 기재되어 있고, 끝에 있는 설명에서 正統6년 琴川 永惠堂 俞氏家가 소장하고 있다”<sup>36)</sup>고 하였다. 후에 陸心源의 『皕宋樓藏書志』에서 明藍格抄本 뒤에 이 판본을 ‘明抄本’이라 기재하고 표기된 말도 매우 간략하다. 繆荃孫이 『藝風藏書記』에서 이 판본 아래에 “明影寫宋本, 紙墨極舊. 後有王安石等銜名, 末有正統六年十月五日琴川俞氏永惠堂家藏一行. 收藏有汪士鍾字春霆號眼園書書印朱文長方印”<sup>37)</sup>이라 기술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판본과 전술한 ‘明·藍格抄本’은 같은 판본이 아니다.

## 5) ‘嘉靖刊本’

余雲岫가 1949년에 清代 京師醫局에서 重刊한 ‘醫統本’을 교정할 때에 일종의 ‘嘉靖本’에 의거하여

31) 張燦理, 徐國仔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8)·經絡受病入腸胃五臟積發伏梁息真肥氣痞氣貴脫第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90.

32)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八)·氣奔豚第二.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71.

33)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卷之六)·逆順病本末方宜形志大論第二.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319.

34)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古鈔本鍼灸甲乙經(卷之六)·逆順病本末方宜形志大論第二.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113.

35)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古鈔本鍼灸甲乙經(卷之一)·序例二.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3.

36)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鍼灸甲乙經考略.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46.

37) 陸心源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皕宋樓藏書志(卷43)·黃帝三部鍼灸甲乙經十二卷.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443.

교정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甲乙經』 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의거하여 ‘嘉靖刻本’ 『甲乙經』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蕭延平이 『太素』를 교정할 때에 분명히 “吳勉學刊嘉靖本”<sup>38)</sup>이라 하였다. 현존하는 吳勉學이 간행한 고적을 살펴보면 『史記』가 明·隆慶에 간행된 것 이외에 나머지 25종 모두 萬曆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嘉靖刻本은 한 부도 없다. 蕭延平이 吳氏가 각각한 ‘醫學六經本’(舊題에는 ‘顧從德編’으로 되어 있음)을 嘉靖刻本으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실은 『醫學六經』 가운데 첫 번째 책인 『素問』만이 明·嘉靖시기 顧從德이 宋本을 다시 간행한 것이고, 기타 다섯 책은 顧氏와 무관하다. 설사 吳氏가 嘉靖시기에 책을 새기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甲乙經』을 새겼다면 萬曆시기 『醫學六經』을 새길 때에 『甲乙經』을 중각하거나 舊版에 의거하여 重印하거나 舊版에 의거하여 翻刻할 필요는 없었다.

余雲岫가 이른바 ‘嘉靖本’에 의거하여 『甲乙經』을 교정할 당시에 인용한 ‘嘉靖本’의 문자는 ‘醫統本’과 다른 것이 단지 40여 조에 불과하다(그 중에 『醫學六經』본과 부합하는 것이 4조가 있음). 그 인용문을 대조해 보면 『四庫全書』본과 일일이 부합하여 『四庫全書』에서 底本으로 삼은 것이 이른바 ‘嘉靖本’임을 알 수 있다.

### 6) ‘鈔正統本’

澠江全善, 森立之의 『經籍訪古志』에는 明·正統 2년 重刊본인 『甲乙經』 초본에 의거한 1~3殘卷을 기술하였다. “半葉九行, 行十四字, 序例後有正統丁巳重刊匡字. 此本校之吳氏刊本, 文字大佳……”<sup>39)</sup>라 하였는데, 楊守敬의 『日本訪書志』에서도 이 판본을 기술하였고 이 판본이 “原在未校正之前, 其它亦多與『千金』, 『外臺』所引合, 遠勝『醫統』本, 惜有殘缺”<sup>40)</sup>

38)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中醫文獻源流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6.

39) 皇甫謐 撰. 黃龍祥, 嚴康維 校注. 鍼灸甲乙經·鍼灸甲乙經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46.

40) 楊守敬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日本訪書志(卷9)·鍼灸甲乙經十二卷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14.

이라 하였다. 이 판본은 현재 일본 國立公文書館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1981년 일본 오리엔트 출판사에서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 3. 기본구성

송대 校本 이전의 옛 판본이 없기 때문에 『甲乙經』의 기본구성을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六經本’은 적어도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皇甫氏의 原集, 송대 이전 사람의 校注, 宋人의 교주, 송대 이후의 교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皇甫謐의 原集과 송인이 교주한 것이 『甲乙經』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 두 가지 구성에 따른 식별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이른바 ‘大字注文’과 釋文

‘六經本’ 『甲乙經』에서 ‘素問曰’, ‘九卷曰’ 등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문자 뒤에 주해를 붙이기도 하였다(어떤 注文 앞에 ‘解曰’이라 붙이기도 함). 이전 사람들은 대부분 주에 나타난 ‘素問曰’, ‘九卷曰’ 등과 같은 문구를 唐宋시기 사람이 보충한 주문이 本文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解曰’ 혹은 주해성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大字의 釋文으로 보았고 당송시기 사람들이 주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大字注文’과 ‘釋文’은 당대 초기 孫思邈의 『千金要方』과 楊上善의 『太素』注에서 대량으로 인용되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宋代에 교정을 거치지 않은 『新雕孫真人千金方』에서 인용한 『甲乙經』의 大字注文과 釋文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肝藏血, 血合(舍)魂. 在氣爲語, 在液爲淚. 又曰 : 人臥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奔,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sup>41)</sup>. —— 권11 제1(원문은 원행본 『甲乙經』 권1 제1에 나라남)<sup>42)</sup>

41)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校. 備急千金要方(卷11)·肝臟.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62.

42)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

“舌者，心之官。故心氣通於舌，舌和則能調五味。又云：在竅爲耳。夫心者，火也：腎者，水也。水火相倚，心氣通于舌，舌非竅也，其通寄於耳”<sup>43)</sup>。—— 권13 제1(원문은 『甲乙經』 권1 제4에 나리남)<sup>44)</sup>

“又曰精氣併於腎則恐，故恐懼而不解則傷於精，精傷則骨瘦痿厥。精時自下，是故五臟主藏精者也，不可傷，傷則失守陰虛，陰虛則無氣，無氣則死矣”<sup>45)</sup>。—— 권15 제1(원문은 『甲乙經』 권1 제1에 나리남)<sup>46)</sup>

楊上善 『太素』注에서 인용한 『甲乙經』의 大字注文은 다음과 같다.

“皇甫謐錄 『素問經』：任脈起於中極之下，以上毛際，循腹裏，上關元，至咽喉。呂廣所注 『八十一難』本言任脈與皇甫謐所錄文同，檢 『素問』無此文”<sup>47)</sup>。—— 『太素·任脈』 권10 楊注

“皇甫謐錄 『素問』云：衝脈起於氣街，併陽明之經，夾臍上行，至胸中而散。此是 『八十一難』說，檢 『素問』無文”<sup>48)</sup>。—— 『太素·衝脈』 권10 楊注

이상 楊上善이 인용한 두 조의 『甲乙經』 문자가 현행본 권2 제2에 나타나며, 원문의 구절 첫머리에 ‘素問曰’이 없다. 아마 초기 전본 『甲乙經』에 ‘素問曰’과 같은 이른바 大字注文이 현행본보다 더욱 많았을 것이다.

唐代 초기의 『千金要方』, 『太素』注文에서 이미 『甲乙經』 가운데 이른바 大字注文과 釋文을 분명히 인용하였다면 이 부분의 문자는 적어도 당대 이전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 원서에서 ‘大字注文’과 ‘釋文’이 ‘本文’과 어기가 통해 있어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왔음이 틀림없다.

권2에서 “心怵惕思慮則傷神……『素問』曰心在聲爲笑，在變動爲憂，在志爲喜，喜傷心。『九卷』及『素問』又曰精氣併於心則喜。或言心與肺脾二經有錯，何謂也？解曰：心虛則悲……故喜變於心而成於肺，思發於脾而成於心，一過其節則二臟俱傷”<sup>49)</sup>이라 한 것처럼 긴밀하게 연계된 문자는 원서를 편찬한 사람의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후인의 旁注가 본문에 섞여 들어갈 수는 없다.

오늘날 ‘六經本’ 『甲乙經』에서 注한 ‘素問曰’이 모두 34조이고 ‘九卷曰’이라 한 것이 19조인데 그 나머지 『素問』, 『九卷』을 대량으로 인용한 문자 앞에 왜 ‘素問曰’, ‘九卷曰’과 같이 표주하지 않았을까? 『素問』, 『九卷』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같은 문제라도 관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른 관점을 일가의 말로 여겨 다른 책 혹은 같은 책의 다른 편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皇甫謐이 『甲乙經』을 엮을 때 반드시 ‘以類相從’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다른 주장을 같은 편속에 모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어떤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甲乙經』에서 ‘素問曰’, ‘九卷曰’이라 標註한 것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문자를 모두 후인이 보낸 ‘大字注文’과 ‘釋文’으로 본다면 단지 皇甫謐이 『甲乙經』을 엮을 때에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그 하나만 택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사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편자가 「自序」 혹은 「序例」에서 분명 설명을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상술한 『甲乙經』의 이러한 문자를 당대 이후 송대 이전의 사람이 증보시킨 글로 여긴 중요한 요인은 위에서 인용한 “素問曰心在聲爲笑”<sup>50)</sup> 문

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

43)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點校. 備急千金要方(卷13)·心臟.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86.

44)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五臟五官第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63.

45)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點校. 備急千金要方(卷15)·脾臟.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211.

46)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7.

47)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0)·任脈.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38.

48)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0)·衝脈.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42.

49)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2.

50)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2.

단 ‘解曰’ 끝부분 “一過其節則二臟俱傷”<sup>51)</sup> 구절 뒤의 주문에서 ‘楊上善云’과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或言心與肺脾二經有錯，何謂也？解曰：心虛則悲……故喜變於心而成於肺，思發於脾而成於心，一過其節則二臟俱傷。此經互言其義耳，非有錯也。又楊上善云：心之憂在心變動，肺之憂在肺之志。是則肺主於秋，憂爲正也：心主於憂(夏)，變而生憂也”<sup>52)</sup>。

상술한 ‘解曰’ 앞에 ‘或言心與肺脾二經有錯，何謂也’라는 질문에 ‘錯’자는 ‘錯互’의 뜻으로 원서 앞에 ‘解曰’ 끝 구절인 ‘一過其節則二臟俱傷。經言若錯，其歸一也’에서 ‘錯’자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此經互言其義耳，非有錯也’에서의 ‘錯’자는 ‘錯誤’의 뜻으로 같은 권에서 두 줄로 되어 있는 小字의 夾注에서 ‘錯’자와 같은 뜻이다. ‘此經互言其義耳’ 이하의 글과 앞 단 ‘解曰’의 문자는 동일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此經互言其義耳’ 앞에 있는 ‘解曰’의 문자를 살펴보면 『新校正黃帝內經素問』 「調經論」에서 ‘皇甫士安云’을 인용하였고, ‘此經互言其義耳，非有錯也’ 뒤의 문자는 ‘楊上善云’<sup>(『陰陽應象大論』 新校正 인용문과 같음)</sup>에서 인용하였는데, ‘此經互言其義耳，非有錯也’ 11글자만 없다<sup>53)</sup>. 이 11자와 그 뒤 ‘楊上善云’이라 한 문자는 모두 宋臣의 注文(宋臣 注文의 감별방법은 아래 상세히 나타남)임을 알 수 있고, 현행본에서 대자로 잘못 배열하였기 때문에 원서의 편자가 ‘解曰’이라 한 것과 서로 섞였다. 이 때문에 『甲乙經』에서 ‘解曰’이라 한 것이 모두 唐代 이후 사람이 증보시켰다고 단언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六經本’에서 또한 ‘難經曰’ 혹은 ‘八十一難曰’을 8차례, ‘張仲景曰’은 1차례 인용하였는데, 현행본에 기재된 皇甫謐의 서문에서 ‘三部’의 서인 『素問』, 『九卷』, 『明堂』을 언급하고 『八十一難』, 『張仲景方』을 언급하지 않았다. 왜 原書와 原序

가 부합하지 않을까?

만약 이러한 문자 모두 후인이 가한 것이라면 『甲乙經』 권2 제2의 「奇經八脈」, 권7 제4의 「陽中風感於寒濕發瘧」, 권8 제2의 「經絡受病入腸胃五臟積發伏梁息賁肥氣痞氣奔豚」 등의 篇題는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는 송대 이전 사람의 古注가 本文에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新校正黃帝內經素問』에 근거하여도 송인이 증보하여 篇題를 고쳤을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있다. 『甲乙經』 권8 제2에 기재된 『素問』 「腹中論」의 “病有身體腰髀股皆腫，環臍而痛，是謂何病？對曰：名曰伏梁……”<sup>54)</sup> 뒤에 ‘『難經曰』이라 한 다섯 조의 五臟積에 관한 문자가 있는데, 『新校正黃帝內經素問』 「腹中論」에서는 “詳此伏梁與心積之伏梁大異。病有同名而實異者非一，如此之類是也”<sup>55)</sup>라 하였다.

林億 등은 『素問』에 실린 ‘伏梁’과 『難經』에서 ‘伏梁’이라 한 것은 완전히 다른 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甲乙經』에서 다섯 조의 ‘難經曰’을 林億이 증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難經曰’, ‘張仲景曰’과 같은 문자가 이미 편명의 조성 부분으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문자는 원서를 편찬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을 수 있다(자료의 표명이 있어야만 상술한 편명이 林億 등이 『甲乙經』을 교정할 때에 고친 것이 된다). 혹은 이와 같은 문자가 모두 『甲乙經』에서 모은 『內經』의 문자에 대한 보충 설명이거나 혹은 주해라면 『甲乙經』을 편집하는 기본 소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自序」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밖에 현행본에 실린 皇甫謐의 서문이 원서를 편찬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의심스런 점은 권7에서 인용한 『黃帝內經靈樞』 「刺節眞邪」의 원문 아래에 ‘八十一難曰’이라 한 것이 있다.

“八十一難曰：陽虛陰盛，汗出而愈，下之即死：陽盛陰虛，汗出而死，下之即愈(與

51)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2.

52)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精神五臟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2.

53)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調經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88.

54)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8)·經絡受病入腸胃五臟積發伏梁息賁肥氣痞氣奔豚第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98.

55)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腹中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257.

經乖錯，於義反倒，不可用也)”<sup>56)</sup>.

상술한 小字夾注는 ‘明抄本’에서는 大字로 되어 있고, 『難經』 「五十八難」 楊注에서 “此說反倒，於義不通，不可用也”<sup>57)</sup>라 한 것과 畱를 같이 한다. 초기 『甲乙經』에 실린 상술한 注文이 刊本에 大字로 되어 있었다면, ‘八十一難曰’이라 한 것이 楊玄操 혹은 당대 이후 사람이 증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楊氏가 『八十一難』本을 개편함에 있어서 상술한 문자와 『靈樞』 「寒熱病」에 나오는 원문과 합하여 ‘五十八難’을 만들었는데, ‘八十一難曰’이라 한 문자가 楊玄操가 증보시킨 것이라면 자연 권8 제1 위에 수록된 『靈樞』 「寒熱病」 원문 아래에 두어야 할 여기에 끼워 넣을 수는 없다. 그 다음 楊氏가 『難經』의 이 문자가 ‘此說反倒，於義不通，不可用也’라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甲乙經』 속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八十一難曰’ 아래 小字 夾注는 송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본 『甲乙經』에는 당대 사람이 증보시킨 글이 확실해 있다. 예를 들어 권3 ‘白環俞’혈 아래 자법인 ‘刺入八分，得氣即瀉，瀉訖多補之，不宜灸’<sup>58)</sup>는 당대 초기 『甄權鍼經』에서 배긴 것이다. 이 문자는 『太平聖惠方』 권99에서 인용한 『甲乙經』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당대 사람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아마 唐本 『甲乙經』의 ‘白環俞’혈 아래에 먼저 刺灸法의 문자가 탈루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사람이 초록할 때 『甄權鍼經』에 의거하여 보완하였고,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초록할 때에 보완한 글 앞에 “甄權鍼經云”<sup>59)</sup>이 탈락되고 대자로 잘못 배열하여 『甲乙經』 원문과 서로 뒤섞였을 것이다.

## 2) 林億 등의 注文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校注한 의서는 『素問』을 제외하곤 모두 처음으로 계통적인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甲乙經』을 포함하여 宋臣이 교주 의서에서 小字夾注의 절대 부분이 林億의 손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말한 ‘절대 부분’은 ‘전부’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시 정리된 의서 가운데 원래 注文이 있었고 林億이 교주할 때 원서 속의 小字注를 여전히 小字夾注로 배열하였으며, 심지어 원서에 있는 일부 大字注文도 小字夾注로 배열시켰다. 따라서 원서의 舊注와 송대 사람의 新注가 형식상으로 완전히 같아 판별이 쉽지 않았다. 이는 송대 사람이 校書에 잘못을 범한 것이기도 하다.

송대에 교정하기 전의 『甲乙經』은 이미 없어서 오늘날 현행본 小字夾注가 어느 것이 舊注이고 어느 것이 宋臣의 注文인지를 식별할 방법이 없다.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교정한 의서는 본초서를 제외하곤 모두 林億이 주관하여 단시간 내에 통일시켜 정리하였기 때문에 상관되는 의서에서의 주문은 매우 높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본다.

『素問』第十七篇：“溢飲者渴暴多飲，而易入……(新校正云：按『甲乙經』易作溢)”<sup>60)</sup>

『甲乙經』卷四第一中：“溢飲者渴暴多飲，而易(一本作溢)……”<sup>61)</sup>

『脈經』卷六第一：“溢飲者渴暴多飲而溢(一作易)……”<sup>62)</sup>

『千金要方』卷十一第一：“溢飲者渴暴多飲而易入……(『素問』溢入作易入)”<sup>63)</sup>.

각 의서를 고찰하여 이와 같이 유사한 주문을 찾았는데, 이 모두 같은 사람인 임억의 손에서 즉 송

56)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7)·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313-1314.

57) 秦越人 著. 難經集註·五十八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9.

58)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3)·背自第一椎兩傍俠脊各一寸五分下至節凡四十二穴第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05.

59)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3)·背自第一椎兩傍俠脊各一寸五分下至節凡四十二穴第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06.

60)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脈要精微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20.

61)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4)·經脈第一(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740.

62) 王叔和 著. 錢超塵 主編. 脈經(卷6)·肝足厥陰經病證第一. 中華經典醫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539.

63)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交點. 千金方(卷11)·備急千金要方·肝臟脈論第一.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63.

인의 주문에서 나왔음을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유추를 통하여 대량으로 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乙經』 권3의 小字夾注 절대다수가 『素問』 王冰注를 인용하여 주를 단 것으로 이러한 주문의 특징이 완전히 같아 동일인에게서 나왔다. 또한 이러한 주문 가운데에는 『新校正黃帝內經素問』의 주문과 서로 부합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甲乙經』 권3에 나타난 절대 부분의 주문이 송대 사람의 주문임을 단정할 수 있다. 또한 林億이 『甲乙經』 권7~권12의 수혈주치 조문을 교주할 때에 『千金要方』 권30에 의거하여 주를 달았고, 『千金要方』 권30 교주에 또한 『甲乙經』에 의거하여 주를 달아 양자 사이에는 상관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계통적인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존하는 ‘六經本’의 小字夾注에 송대 이전에 舊注가 있었고 또한 송대 이후에 補注가 있었지만 절대다수가 송대 사람의 주문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또한 다른 방면에서 실증할 수 있다. 『甲乙經』은 주로 『素問』, 『靈樞』, 『明堂』에서 자료를 골랐는데, 『甲乙經』의 小字注文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서의 舊注이고 송인의 新注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조를 통하여 ‘六經本’에서 이와 같은 小字注文은 4곳 모두 20여 조 즉 권3의 ‘本神’, ‘鳩尾’ 및 권5의 ‘禁刺’, ‘禁灸穴’에서만 발견된다.

일부 학자는 ‘六經本’ 『甲乙經』의 小字夾注가 주로 宋人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 그 이유는 현존본 『甲乙經』의 小字注는 『素問』 新校正과 달리 분명한 표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해이다. 林億 등이 『素問』을 교정한 것은 全元起의 최초의 주와 王冰 次注를 기초하여 다시 교정하였기 때문에 교주한 글 앞에 반드시 ‘新校正云’ 혹은 ‘臣億等按’이라 분명히 표시하였지만, 『甲乙經』은 宋人이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교주하였기 때문에 注文 앞에 상술한 것과 같이 반드시 표주하지는 않았다.

#### 4. 「序例」 및 기타 편집체례

『甲乙經』 첫 권 「自序」 뒤에 「序例」가 실려 있

다. 全文은 아래와 같다.

“請問，黃帝及雷公皆曰‘問’：其對也，黃帝曰答，岐伯之徒皆曰‘對’。上章問及對，已有名字者，則下章但言‘問’，言‘對’，亦不更說名字也：若人異則重複更名字，此則其例也。請言‘主之’者，可灸可刺：其言‘刺之’者，不可灸：言‘灸之’者，不可刺，亦其例也。”<sup>64)</sup>

이 문장의 위치로 보아 「序例」는 원서에 이전부터 있었고 송인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분석하면 이 「序例」도 송인이 편찬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송인이 『甲乙經』을 교주할 때에 권5 제1의 禁刺, 禁灸穴 아래에 모두 약간의 수혈을 새롭게 증보하였기 때문에 「序例」가 송인이 만든 것이라면 권7~권12에 실린 새롭게 증보시킨 禁穴의 주치 조문이 이에 상응하여 고쳐졌지 현행본과 같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 敦煌卷子 『甲乙經』 殘卷과 『千金要方』, 『外臺秘要』, 『醫心方』 등 송대 이전의 의서에서 인용한 『甲乙經』은 이 「序例」와 부합한다. 「序例」가 송인의 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송대 이전의 古本인 ‘正統本’에서도 이 「序例」를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千金要方』, 『脈經』 등 송인이 인용한 대량의 송본 『甲乙經』 문자에서 보면 송대 校本의 체례가 개별적으로는 「序例」와 차이가 있지만 절대다수의 인용문 모두 「序例」와 부합한다. 송대 校本이 송대 이후에 중간되거나 다시 인쇄되지 않았고 누차 傳抄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됨으로써 점차 원서의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明抄本’은 부분적인 篇卷만이 「序例」와 완전히 부합하지만, ‘六經本’과 이른바 ‘正統本’, ‘嘉靖本’의 체례는 기본적으로 「序例」와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問’, ‘對’와 같은 예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권7~12에 기재된 『明堂』의 禁刺, 禁灸穴 주치조문의 형식은 ‘六經本’과 ‘明抄本’ 모두 「序例」와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다.

이 「序例」는 『甲乙經』을 고찰하고 교감하는데 특

64)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序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5.

수한 의의가 있어 중시할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敦煌卷子(No. P3481)의 원문이 아래와 같다.

“問曰：脈之緩急小大滑澀之形病何如？  
對曰：心脈急甚者爲癰，微急爲心痛引背，  
食不下，上下行，時唾血：大甚爲喉介：微  
大爲心痹引背，善淚出：小甚爲善噦：微小  
爲消：滑甚爲善渴：微滑爲心疝引臍，少腹  
鳴：澀甚爲厥：微澀爲血溢維厥，耳鳴癩  
疾。肺脈急甚爲癩疾……”<sup>65)66)</sup>

이 敦煌卷子の 내용은 『靈樞』 권1 제4, 『甲乙經』 권4 제2下, 『黃帝內經太素』 「五臟脈診」 권15, 『脈經』 권3 제1에 각기 나타나며, 이전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病形脈診』 혹은 『失名脈書』라 하였다. 『甲乙經』 「序例」에 근거하여 식별한다면 형식상만으로 대체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글은 『甲乙經』에서 베낀 것이다. 다시 문자와 결합하여 비교해도 이러한 점을 실증할 수 있다. 『靈樞經』에 실린 이 절은 문답체인 “黃帝曰：請問脈之緩急小大滑澀之病形何如？岐伯曰：臣請言五臟之病變也……”<sup>67)</sup>로 되어 있고 『太素』 권12에 기재된 글도 이와 같이 상술한 문답체와는 분명 다르다.

상술한 것이 『脈經』에서도 나타나는데 문답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敦煌卷子가 『脈經』에서 베낄 수는 없다. 敦煌卷子는 형식은 물론이고 문자도 모두 『甲乙經』과 부합하여 그 후에 베낀 것이 분명하다. 설명이 필요한 점은 이 敦煌卷子의 문자가 현행본 『甲乙經』 권4 제2편의 첫 머리에 나타나며 「序例」에 따라 이곳의 문답은 ‘黃帝問曰’, ‘岐伯對曰’로 되어야 하지만 ‘敦煌本’에는 ‘問曰’, ‘對曰’로 되어 있는 것은 초기 『甲乙經』 전본에 이 문단의 문자가 권4 제2上에 수록된 『黃帝內經靈樞』 「邪氣臟腑病形」 뒤에 이어져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序例」에 의거하면 기타 의서에서 『甲乙經』을 인용한 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千金要

方』에 수록된 대량의 『甲乙經』 문자는 원서의 편자인 孫思邈이 직접 인용하여 수록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孫氏가 다른 책에서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도 있으며 또한 송인이 교정할 때에 증보한 것도 있다. 이러한 인용문은 대부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데, 「序例」를 참조하지 않으면 쉽게 식별하지 못한다.

「序例」의 더욱 중요한 작용은 현행본 『甲乙經』에서의 착오를 교감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甲乙經』이 송대 이후에 필사에 의거하여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후인이 베낄 때 「序例」를 잘 알지 못하여 대부분 권7~권12에 실린 禁刺, 禁灸穴 주치조문의 형식을 일반 수혈주치 조문과 완전히 같은 형식으로 고쳤다. 예를 들어 ‘絲竹空’은 禁灸穴로 주치조문의 형식은 ‘……刺絲竹空’으로 되어야 하지만 ‘六經本’의 현존하는 3조, ‘明抄本’에 실린 4조의 ‘絲竹空’ 주치 조문은 모두 “……刺絲竹空主之”<sup>68)</sup>로 고쳐졌다. 이러한 착오는 모두 「序例」에 의거하여 식별되며 아울러 개정될 수 있다.

『甲乙經』의 기타 편집체례에 관하여 원서의 서문에서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중요한 편집체례가 있는데, 「序例」와 原序에서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원서에서 설명을 가하지 않은 이러한 체례는 『甲乙經』을 읽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 요점을 골라 아래와 같이 고찰하기로 한다.

## 1) 수혈의 證治條文 배열에 따른 「序例」

『甲乙經』 권7~권12에 실린 수혈주치 조문은 모두 『明堂經』에서 수집하였지만 각 편의 수혈주치 조문의 배열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권7~12 가운데 임의의 한 편을 골라 수혈주치 조문에서 수혈을 차례로 배열한다면 그 순서는 권3의 수혈 배열차서와 공교롭게 같다. 어떤 병증 뒤에 所主하는 혈이 두 혈 이상인 것은 수혈 배열의 선후도 권3과 같다. 예를 들어 권7 제1 中篇에 있는 병증주치 조

65)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靈樞·邪氣藏府病形.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30.

66) 張燦理, 徐國仔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4)·病形脈診第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822-825.

67)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点校.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邪氣藏府病形第四.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9.

68)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六經本古鈔本鍼灸甲乙經(卷之七)·太陽中風感於寒濕發經第四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146.

문 뒤에 所主하는 穴을 차례로 배열하면 표 1.과 같다.

「序例」	
神庭 曲差 本神 上星 承光 通天 玉枕 臨泣 承靈	腦空 率谷 啞門 天柱 風池 大椎 陶道 神道 命門
大杼 風門 膈腧 上膠 魄戶 神堂 諶諶 膈俞 懸顛	魂門 頷厭 懸厘 陽白 攢竹 承漿 顛息 天關 巨闕
上脘 陰都 少商 魚際 太淵 列缺	

표 1. 수혈의 證治條文 배열에 따른 『甲乙經』의 「序例」

이상 42혈 가운데 ‘諶諶’ 뒤의 ‘膈俞’, ‘懸顛’의 2혈만이 권3의 수혈 배열차서와 부합하지 않고, ‘膈俞’혈은 앞의 것과 겹쳐져 분명 잘못되었으며, 『醫學綱目』 권22에 인용한 ‘膈關’은 『外臺』, 『醫心方』, 『千金要方』과 같다. ‘顛息主’의 조문은 ‘明抄本’에서는 注文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편에 있는 수혈 배열은 모두 권3과 완전히 같다.

또한 권7 제5에서 “痰瘧, 取完骨及風池, 大杼, 心俞, 上膠, 諶諶, 陰都, 太淵, 三間, 合谷, 陽池, 少澤, 前谷, 後溪, 腕骨, 陽谷, 俠溪, 至陰, 通谷, 京骨皆主之”<sup>69)</sup>라 하여 이 조문의 병증 뒤에 있는 수혈의 배열차서도 권3과 완전히 같다. 지적해야 할 것은 일부 편에서의 몇몇 수혈주치 조문의 배열은 권3과 같지는 않으며, 그 중에 몇몇은 혈명을 잘못 베껴 ‘小海’를 ‘少海’로 ‘天溪’를 ‘太溪’로 잘못 초록하였다. 일부는 착간의 소치이다.

『甲乙經』의 이러한 규율을 알고 『甲乙經』을 교감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甲乙經』에서 同名穴의 판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甲乙經』에는 5쌍의 同名異穴 즉 (頭)臨泣 - (足)臨泣: (腹)通谷 - (足)通谷: (頭)瘡陰 - (足)瘡陰: (手)三里 - (足)三里: (手)五里 - (足)五리가 있다. 이 5쌍의 同名穴이 권7~12에 모두 39차례 나타난다. 『甲乙經』의 수혈배열에 관한 「序例」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39조의 同名穴을 식별하기가 어려

울 것이다.

사실상 당대 초기 이후 역대 침구서 가운데 『甲乙經』의 同名穴에 대한 식별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甲乙經』 권7 제5에서 “瘧, 日西發, 臨泣主之”<sup>70)</sup>라 하였는데, 이 조문의 앞뒤는 모두 足部の 穴이 주관하는 조문으로 여기의 ‘臨泣’은 분명 足部の 혈이지 頭部の 혈이 아니다. 그러나 『千金要方』 권10에서는 이 혈 아래에 “穴在目眦上入髮際五分陷者”<sup>71)</sup>라 주석하여 이 혈을 두부의 혈로 오인하였다. 『千金要方』 권10에 기재된 이 조의 원문이 『千金翼方』 권26과 『太平聖惠方』 권52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宋人の 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千金要方』의 원서에 있었다.

또한 『甲乙經』 권11 제2에서 “癩疾嘔沫, 神庭及兌端, 承漿主之: 其不嘔沫……尺澤, 陽溪, 外丘, 當上脘旁五分通谷, 金門, 承筋, 合陽主之”<sup>72)</sup>라 하였다. 상술한 『甲乙經』의 수혈배열에 관한 「序例」를 이해한다면 이 조문에서 ‘通谷’이 족부의 태양경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고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복부의 혈로 잘못 판단하여, 이 혈 앞에 “當上脘旁五分”이라 주를 달았다. 『醫學綱目』에서 宋本の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이 6자도 대자로 되어 있어 이 주문이 송대 이전 사람이 주해한 것으로 보았는데 잘못된 송대 이전에 있었다. 『甲乙經』의 수혈배열 규율을 알지 못하면 원서를 이해할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교주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甲乙經』의 교감에 이용할 수 있다. 연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甲乙經』 권7~12에 글자가 비슷한 혈이 수록되어 뒤섞인 것이 적지 않다(‘小海’는 ‘少海’로, ‘天溪’는 ‘太溪’로, ‘箕門’은 ‘期門’으로, ‘中注’는 ‘中清’으로 잘못되어 있는 등의 경우). 혹은 탈간으로 인하여 두 개의 수혈주치 문자가 뒤섞여 하나로 되었는데, 이와 같은 착오에 대해 특히 『外臺秘要』에

70)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7)·陰陽相移發三瘧第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41.

71)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點校. 備急千金要方(卷10)·溫瘧第六.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60.

72)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1)·陽厥大驚發狂癇第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30.

69)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7)·陰陽相移發三瘧第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39.

서 인용한 초기 전본에 일부 착오가 나타났다.

상술한 수혈배열의 서례를 알지 못한다면 매우 어렵게 되고 심지어 발견되고 개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착오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의서의 자료와 결합하면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

셋째, 착간을 발견할 수 있다. 송본과 송대 이전 舊本 『甲乙經』이 없고, 전세본 『甲乙經』 판본에 상당차 차이가 있고, 또한 참조할 수 있는 한 종의 異本만 있기 때문에 권7~12 수혈주치 조문 가운데 대량의 착간 현상에 대해 상술한 수혈배열 서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발견하기 어렵다.

## 2) 合編한 예

『甲乙經』의 편자가 『素問』, 『九卷』, 『明堂』을 초록한 것은 楊上善이 『太素』에서 『內經』의 원문을 직접 초록하고 분류하여 편집한 것과는 달리 삭제하고 개편한 곳이 있다. 예를 들어 『甲乙經』 권1 제15에서 “以五色命臟, 青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肝合筋, 青當筋: 心合脈, 赤當脈: 脾合肉, 黃當肉: 肺合皮, 白當皮: 腎合骨, 黑當骨”<sup>73)</sup>이라 하였다. 이 구절은 『素問』 「五臟生成」, 『靈樞』 「五色」에 각기 나타나고, 그 중에 “青當筋, 赤當脈, 黃當肉, 白當皮, 黑當骨”<sup>74)</sup> 15자는 『素問』 「五臟生成」(全元起 注本도 같음)에 나타나며, 또한 『太素』 제17 첫 권에는 본래 온전한 구절로 되어 있어, 두 책에 모두 “故曰白當皮, 赤當脈, 青當筋, 黃當肉, 黑當骨”<sup>75)</sup>로 되어 있다. 그러나 『甲乙經』 편자는 이 구절을 추출하여 상술한 『九卷』의 글 속에 섞어 넣어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한 예가 『甲乙經』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甲乙經』에서 합편한 예에 대해 宋人은 이미 인

73)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1)·五色第十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16.

74)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慶補註 黃帝內經·五臟生成篇第十.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84.

75)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卷17)·證候之一.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537.

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甲乙經』 권6 제10에서 “病先發於心, 心痛. 一日之肺, 喘咳: 三日之肝, 脅支滿, 閉塞不通, 身痛體重. 三日不已, 死. 冬夜半, 夏日中”<sup>76)</sup>이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전반 구절은 전변을 설명한 문자로 『靈樞』 「病傳」에 나타나고, 후반 구절은 병증을 서술한 문자로 『素問』 「標本病傳」에 나타난다. 따라서 『新校正』에서 “詳『素問』言其病, 『靈樞』言其臟, 『甲乙經』乃併『素問』, 『靈樞』二經之文, 而病與臟兼舉之”<sup>77)</sup>라 하였고, 『甲乙經』의 이 편 아래에 林億도 “乃皇甫士安合二書爲此篇文也”<sup>78)</sup>라 주석하였다. 『甲乙經』에서 이와 같이 합편한 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 부분적인 문자를 후인의 注文 혹은 補文으로 오인하기가 쉽다.

## 3) 改編한 예

『甲乙經』 편자가 원문을 개편을 예에 관하여 가장 전형적인 것은 권12 제1편의 예를 꼽을 수 있는데 원문에는 “凡此十四邪者, 皆奇邪走空竅者也….”<sup>79)</sup>라 되어 있다. 이 구절은 『靈樞』 「口問」에 나타나며 그 중에 ‘十四邪’는 『靈樞』에서는 ‘十二邪’로 되어 있고 『太素』 「十二邪」에서도 마찬가지이다. 『甲乙經』 편자가 『靈樞』 「口問」에 원래 있던 12종의 병증 아래에 또한 다른 편 의 원문(『靈樞·大惑』에 나타남)에서 ‘善忘’, ‘善饑’를 증입시켰기 때문에 부득불 원문 ‘十二邪’를 ‘十四邪’로 고치게 되었다. 『甲乙經』의 편자가 원문을 개편한 것은 대부분 요약이고, 원문을 합편할 때에는 앞뒤 문장의 뜻을 서로 순조롭게 이어서 참작하여 고쳤다.

지적해야 하는 것은 원문에 대한 개편에 많거나 적거나 원문의 본뜻을 잃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凡此十四邪者, 皆奇邪走空竅者也……”<sup>80)</sup>라

76)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6)·五臟傳病大論第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64.

77)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慶補註 黃帝內經素問·標本病傳論篇第六十五.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414.

78)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6)·五臟傳病大論第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69.

79)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2)·欠職喘振寒噫噎蟬泣太息淚下耳鳴嚙舌善忘善饑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39.

한 것은 본래 『靈樞』 「口問」에 실린 ‘十二邪’의 병기를 설명한 것이지 ‘善忘’, ‘善饑’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甲乙經』을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다.

#### 4) 중복된 것을 삭제한 예

번잡하고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편집방식은 『甲乙經』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특히 “刪繁”한 예는 거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素問』 「通評虛實論」에서 “帝曰：癲疾何如？岐伯曰：脈搏大滑，久自己。脈小緊急，死不治。帝曰：癲疾之脈虛實何如？岐伯曰……”<sup>81)</sup>이라 하였고, 『太素』 「虛實脈診」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나 『甲乙經』에는 “癲疾，脈搏大滑，久自己……”<sup>82)</sup>라 초록되어 있고 黃帝와 岐伯의 문답은 삭제하였다. 이러한 예가 많아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素問』, 『九卷』, 『明堂』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자에 대해 皇甫謐은 일반적으로 모두 삭제하였는데, 「原序」에서 “刪其浮辭，除其重複”<sup>83)</sup>이라 한 것과 서로 부합한다.

#### 5. 『甲乙經』의 ‘三部’와 현행본 『內經』, 『明堂』佚文과의 비교

『甲乙經』을 현행본 『素問』, 『靈樞』와 상관된 부분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양자 사이에 文字, 文序 방면은 물론이고, 내용 방면에 있어서도 모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아래에 간단히 기술하여 『內經』 연구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 1) 『甲乙經』에 나타나고 『素問』, 『靈樞』에 나타나지 않는 예

『甲乙經』 권7 제1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다.

“問曰：秋冬無極陰，春夏無極陽者，何謂也？對曰：無極陽者，春夏無數虛陽明，陽明虛則狂；無極陰者，秋冬無數虛太陰，太陰虛則死”<sup>84)</sup>.

이상 내용이 또한 『太素·禁極虛』에 나타나 문자가 기본적으로 같다. 『甲乙經』의 이 구절 앞뒤를 살펴보면 모두 현행본 『素問』 「通評虛實論」에 나타나며 이 편은 脫文이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술한 문자 또한 宋校本 『脈經』 권7 제19편 「重實重虛陰陽相附生死證」에 나타나며 이는 林億 등이 『脈經』을 교정할 때에 증보시킨 것이다.

현행본 『甲乙經』 「癰疽」에서 “黃帝曰願盡聞癰疽之形與忌日名”<sup>85)</sup>이라 하였으나, 대답에서는 ‘癰疽之形’만 언급하고 ‘忌日名’은 언급하지 않아 脫文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甲乙經』 권11 제9 下에서 ‘癰疽之形’을 논술한 후에 아래와 같이 대량으로 기재하였다.

“身形應九野奈何？對曰：請言身形之應九野也……凡此九者善候八正所在之處，主左右上下身體有痛腫者，欲治之，無以其所直之日潰治之，是謂天忌日也。五子夜半，五丑雞鳴，五寅平旦，五卯日出，五辰食時，五巳禺中，五午日中，五未日，五申晡時，五酉日入，五戌黃昏，五亥人定。以上此時得疾者皆不起”<sup>86)</sup>.

이 글 또한 『千金翼方』 권23 제2에 나타나고, 현행본 『靈樞』에서 “身形應九野奈何……是謂天忌日也”<sup>87)</sup> 구절은 「九鍼論篇」에 나타나지만 뜻이 순조

80)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2)·欠曠唏振寒噫噎瀉太息淚下耳鳴嚙舌善忘善饑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39.

81)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通評虛實論篇第二十八.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200-201.

82)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1)·陽厥大驚發狂癰第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39. p.1722.

83)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0.

84)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7)·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327.

85)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1)·寒氣客於經絡之中發癰疽風成發厲浸淫第九(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97.

86)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下冊, 卷11)·寒氣客於經絡之中發癰疽風成發厲浸淫第九(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815.

87)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點校.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

롭지 못하다. 또한 ‘五子夜半’이하의 문자는 모두 오늘날 『靈樞』, 『素問』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조문의 차서가 다른 예

『甲乙經』에 수록된 『素問』, 『靈樞』 원문의 차서가 王冰, 全元起 注本 『素問』 및 현행본 『靈樞』와 다른 곳이 허다한데, 이런 방면은 皇甫謐이 『內經』의 원문을 인용하여 수록할 때 일부 개편한 것이다. 다른 방면은 『甲乙經』이 송대에 이르러 착간현상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원문의 차서에 차이가 생긴 것은 이상 두 가지 요인으로 조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甲乙經』 권5 제1 상의 예를 들어 본다.

“新內勿刺, 已刺無內: 大怒無刺, 已刺勿怒: 大勞無刺, 已刺勿勞: 大醉無刺, 已刺勿醉: 大飽無刺, 已刺勿飽: 大饑無刺, 已刺勿饑: 大渴無刺, 已刺勿渴”<sup>88)</sup>.

이 구절의 내용은 현존본 『靈樞』 「終始」에 나타나지만, 문자와 文序 모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新校正黃帝內經素問』 「刺禁論」에서 『靈樞經』과 『甲乙經』을 함께 인용하였다. 상술한 차이는 근거로 삼은 판본의 차이로 조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3) 현존하는 『明堂』 殘卷과 그 佚文과의 차이

이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밝혀두어야 할 문제는 즉 『甲乙經』에 수록된 『明堂』의 수혈 부위와 주치병증은 따로 나누어 배열해야 하지만, 楊上善 注本の 『明堂經』과 敦煌卷子 『明堂經』 殘卷에서 수혈부위와 주치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형식이 옛 『明堂』의 원형일까? 먼저 『甲乙經』의 「原序」를 살펴보기로 한다.

“比按『倉公傳』, 其學皆出于『素問』, 論病精微: 『九卷』是原本經脈, 其義深奧, 不易覺也. 又有『明堂』, 孔穴, 鍼灸治要, 皆黃

帝岐伯選事也. 三部同歸……”<sup>89)</sup>

이상의 문장에 대해 各家의 이해가 모두 다른데, 주로 이른바 ‘三部’의 의서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일본학자 谷田伸治의 학설<sup>90)</sup>에 따른 標點이다. 현재 통행하는 주장은 『明堂孔穴鍼灸治要』를 서명으로 보았고, 清末 孫鼎宜는 『明堂孔穴』, 『鍼灸治要』 두 책으로 이해하였다. 혹은 『甲乙經』에 수록된 『明堂』이 한 책 즉 옛 『明堂』의 원형인 수혈과 주치가 각기 기술된 책이라면, 현존하는 楊上善 注本 『明堂』 殘卷과 敦煌 『明堂』 殘卷은 단지 『甲乙經』에서 수집한 것이 된다. 그러나 상호 대조해 보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말하자면 楊上善 注本인 『明堂』, 敦煌卷子 『明堂』 殘卷 및 別本 『明堂』의 佚文은 『甲乙經』에서 전적으로 짐작할 수가 없다.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만 얻을 수 있다. 古 『明堂』의 원형은 수혈과 주치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皇甫謐이 『甲乙經』을 편찬할 때 권3은 『明堂』의 원문을 직접 수록하였으나, 수혈주치 내용은 ‘以類相從’하는 원칙에 따라 원서의 차례에 따라 각기 권7~12 각 편에 초록하였기 때문에 이 두 부분 수혈의 배열차서는 서로 부합한다. 이러한 규율은 편자가 古 『明堂』을 초록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편자 본인이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序文」과 「序例」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초록 방식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권7 이후 수혈주치 조문에서 일부 중복되는 예나 혹은 斷句가 적절치 못한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후인이 이 부분에서 조문의 배열 규율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의 同名異穴을 식별할 방법이 없었다.

전세본 『甲乙經』이 시대에 따라 의가의 교정과 개정의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서의 옛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甲乙經』 原集과 『明堂經』 殘卷 및 佚文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양자가 같은 책의 같은 전본에서 기원하였는

九鍼論第七十八.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p.386-387.

88)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5)·鍼灸禁忌第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887.

89)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卷5)·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0.

90) 谷田伸治. 『甲乙經』お構成する「三部」とは何か. 漢方の臨床. 東京. 平成元年. 36(1). p.251.

지 여부를 고찰하기가 어렵다. 현행본 『甲乙經』에 수록된 『明堂』의 문자가 『明堂』 殘卷 및 佚文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주로 『甲乙經』의 수혈내용 특히 권3의 문자가 후인의 개편을 거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甲乙經』 권3에 기재된 ‘伏兔’혈 아래에 “刺入五分”<sup>91)</sup>이라 하였는데, 권7 뒤쪽 각 편에는 모두 이 혈의 주치조문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楊上善 注本 『明堂』 및 『外臺』, 『千金』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 ‘刺入五分’ 4글자는 후인이 증입시킨 것이다. 또한 『甲乙經』 권5에 기재된 禁灸, 禁刺穴 아래에 모두 ‘鳩尾’혈이 있지만 『甲乙經』과 『明堂』 佚文에는 이 혈에 대한 대량의 주치증이 실려 있어 원서에 기재된 이 혈은 禁刺 뿐만 아니라 禁灸일 수도 없다.

전세본 『甲乙經』 권5에 기재된 禁灸穴을 살펴보면 모두 24혈로 宋校本 『千金要方』 권29와 같다. 그러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千金要方』에는 단지 19혈만 실려 있어 『醫心方』 권2에서 楊上善 注本을 발췌한 것과 완전히 부합한다.

이로써 『甲乙經』 原集에 실린 『明堂』의 글은 隋唐시기 『明堂』전본과 내용상으로 매우 접근되어 있었음을 추정하여 알 수 있다.

## 6. 『甲乙經』을 인용한 의서

### 1) 『小品方』

『小品方』 12권은 陳延之가 편집한 것으로 5세기 중엽에 성서되었다. 침구 내용은 제12에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서는 이미 실전되었으며 지금은 일본에 이 책의 권1 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千金要方』, 『醫心方』에 『小品方』의 대량 佚文이 실려 있다. 아래에 일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陳延之云：『黃帝經』曰禁不可灸者有十八處，而『明堂』說便不禁之。別記之如左：頭維禁不可灸：承光禁不可灸：腦戶禁不可灸：風府禁不可灸：啞門禁不可灸：耳門，耳中有膿及適抵無灸：人迎禁不可灸：絲竹空，灸之

不幸使人目小及盲：承泣禁不可灸：脊中禁不可灸：乳中禁不可灸：石門，女子禁不可灸：氣衝，灸之不幸不得息：淵腋，灸之不幸生腫蝕：天府禁不可灸：經渠禁不可灸：地五會禁不可灸：伏兔禁不可灸。又云曹氏說不可灸者如左……”<sup>92)</sup>(『醫心方』 권2 제4에서 인용)

이상은 『明堂經』에서 상응하는 수혈 아래에 분산되어 나타나지만, 그러나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상술한 특유한 차서로 나타난 것은 『甲乙經』에서만 보인다. 게다가 陳氏가 『黃帝經』을 인용한 원서와 다른 『明堂』과 대비해 보면 여기의 『黃帝經』은 『黃帝明堂經』이 아니고 『黃帝鍼灸經』 즉 『甲乙經』을 가리킨다. 이 문단은 『千金要方』에도 나타나는데, 宋人이 이 책을 교주할 때에 5조문을 증가시켰고, 『甲乙經』 권5를 교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5조문을 증가시켰다. 唐代 王燾가 『外臺秘要』를 편집할 때에 또한 상술한 『甲乙經』 원문을 甄權의 『鍼經』과 서로 뒤섞어 『甲乙經』 원서의 옛 모습을 잃었다. 따라서 陳延之가 六朝시기 『甲乙經』을 인용한 것은 『甲乙經』 원서의 禁灸穴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2) 『千金要方』

宋校本 『千金要方』에서 『甲乙經』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그 인용문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손사막이 『甲乙經』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인용한 것이고, 둘째 宋臣 林億이 宋本 『甲乙經』에서 초록한 것이다. 임역의 인용문 또한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千金要方』 원서에는 본래 없었지만 『甲乙經』에 의거하여 직접 증보시킨 것이다. 宋人이 인용한 『甲乙經』의 글은 대부분 이러한 성질에 속한다. 그러나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甲乙經』의 「序例」와 宋人이 인용문 앞에 표시한 『甲乙經』의 편명에 근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甲乙經』, 『素問』, 『靈樞』의 상응하는 문자와 대비하면 송

91)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六經本古鈔本鍼灸甲乙經(卷3)-足陽明及股凡三十六第三十二. 東洋善本醫學叢書.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72.

92) 丹波康賴 撰. 王大鵬, 樊友平, 張曉慧 校注. 醫心方(卷2)-灸禁法第四.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142.

인의 이러한 補文 모두 『甲乙經』에서 초록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千金要方』에 본래 있었던 글을 송인이 『甲乙經』에 의거하여 개편하거나 직접 교체하기도 하였다. 林億 등이 『千金要方』을 교주할 때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원서 가운데 『素問』, 『靈樞』에서 수록한 일부 문자에 대해 『甲乙經』에 의거하여 개편을 가하거나 혹은 『內經』에서 수록한 원서의 문장을 『甲乙經』의 문장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未校本 권11에 『素問』에서 인용한 문단인 “肝者, 頭目眩, 支脅痛, 一日體痛, 二日脹, 三日腰脊背少腹痛, 脛酸, 十日死. 若冬則日中夏則朝食”<sup>93)</sup>이 있는데, 임역이 校書할 때에 이 글이 온전치 않다고 보아 『甲乙經』 권6 제10편의 문자로 대체하였다. 기타 心臟卷, 脾臟卷, 肺臟卷, 腎臟卷에서 상관되는 문자도 모두 『甲乙經』의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未校本 『千金要方』 권1 제4 「診候」 마지막 문단인 “黃帝曰: 願聞淫邪沍衝奈何? 岐伯曰……客於胞則夢洩便”<sup>94)</sup>은 전세본 『靈樞』 「淫邪發夢」에 나타나고 『太平禦覽』 권397에서 인용한 『黃帝鍼經』과 서로 부합하여 林億도 『甲乙經』에 의거하여 개편하였다.

### 3) 『外臺秘要方』

唐代 王燾의 『外臺秘要方』 권39 「明堂」의 수혈 내용은 주로 『甲乙經』에서 집록한 것으로 현행본 『甲乙經』 수혈 부분을 교감하는데 극히 중요한 문헌적인 가치가 있다. 이밖에 『外臺』 기타 권에서도 일부 『甲乙經』 문자를 인용하여 『甲乙經』 초기 전본의 옛 모습을 고찰하는 데에도 참고 가치가 있고 『甲乙經』 연구에 『外臺』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外臺』에 수록된 『甲乙經』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전세본 『外臺』는 이미 송인의 교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어서 王燾 원서의 옛 모

습은 아니다.

둘째, 권39 「明堂」은 주로 唐代 傅本인 『甲乙經』에서 수집하였지만 王燾가 초록할 때에 또한 甄權, 楊玄操, 孫思邈의 집구서를 참고하였다. 그 중에 甄權을 인용한 것을 고찰하면 『甄權鍼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는 『甲乙經』에 수록된 『明堂』과 같은 책이 아니다. 『千金要方』 권30은 주로 『黃帝明堂』과 『甲乙經』에서 수집하였으나 체례와 원서가 크게 다르다. 특히 王燾가 『甄權鍼經』 등을 인용할 때 가끔 출처를 밝히지 않아 『甲乙經』에서 수집한 문자와 서로 뒤섞여 있다. 이러한 문자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甲乙經』 문자로 간주하여 현행본 『甲乙經』을 교열하는데 이용한다면 원서에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外臺』 「明堂」권 이외에 인용한 『甲乙經』은 모두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권20 「水腫方」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黃帝問曰: 水與膚脹, 鼓脹, 腸覃, 石瘕, 何以別之? 岐伯對曰: 水始起也……曰: 膚脹, 鼓脹可刺耶? 對曰: 先瀉其腹之血絡, 後調其經, 亦刺去其血脈……師曰: 病有風水, 有皮水, 有正水, 有石水, 有黃汗……久未愈, 必致痛膿. 併出『甲乙經』第八辛卷. 『千金』, 范汪同”<sup>95)</sup>.

문장 끝에 명확하게 ‘出『甲乙經』第八辛卷’과 같은 주가 있고, 또한 첫 구절은 현행본 제8권에 나타난다. 두 구절의 문자를 『甲乙經』에서 직접 베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구절은 『千金要方』 권21에서 초록하였고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은 또한 『醫心方』 권10에 수록된 『集驗方』에 나타난다.

『千金』의 문자는 『集驗方』 혹은 『范汪方』에서 초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千金』에서 인용한 첫 번째 구절은 체례는 물론이고 문자도 『甲乙經』과 부합하지 않으며 『靈樞』에 기원한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은 현행본 『金匱要略』에 나타나며, 그 기원은 仲景에서 비롯된 것이지 『甲乙經』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93)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11)·肝臟脈論第一.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63.

94)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1)·診候第四.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

95)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卷20)·水腫方一十三首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6.

王焘는 『千金要方』에서 옮겨 놓은 이 두 구절에서 ‘出『甲乙經』第八辛卷’이라 하였는데, 이 책에서 수집한 문헌의 예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5에서 인용한 5구절의 『甲乙經』문자에서 “出庚卷第七. 『千金』同”이라 주하였는데, 실은 『千金要方』 권10에서 옮긴 것이다. 『醫心方』 권14에 의거하면 『千金』의 문장도 『集驗方』에서 베낀 것이다. 또한 권28에서 『甲乙經』을 인용하였다.

“『甲乙經』云：黃帝問子岐伯，有卒死者，何邪使然？答曰：得三虛者暴疾而死，得三實者邪不能傷也。黃帝曰：願聞三虛。答曰……有卒死不知人，有復生，何氣使然？陰氣先竭，陽氣未入，故卒死而不知人。氣復則生。『集驗』。出第六卷中”<sup>96)</sup>。

이상 첫 구절은 『甲乙經』 제6권에 나타나지만 체례와 문자 모두 『甲乙經』과는 크게 다르다. 두 번째 구절은 『素問·舉痛論』에 나타나지만 黃帝와 岐伯이 문답하는 말이 없다. 이 두 구절은 『甲乙經』에서 직접 초록한 것 같지는 않고 『集驗方』에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外臺秘要』는 『甲乙經』을 교감하는데 극히 중요한 他校 자료이지만 이 책의 인용문 방식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현행본 『甲乙經』을 교정하면 착오를 면하기 어렵다.

#### 4) 『素問』注

『素問』의 注文은 주로 林億의 注文으로 『甲乙經』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대략 300여 조문으로 宋本 『甲乙經』을 고찰하고 현행본 『甲乙經』을 교감하는데 모두 중요한 문헌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공할만한 상관되는 색인이 없거나 혹은 『靈樞經』이 이미 殘缺되었거나 이상 양자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林億 등이 『素問』을 교정할 때에 때로는 『甲乙經』에 실린 『靈樞』의 글로 교주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熱病始於足脛者，刺足陽明而汗出止”<sup>97)</sup>

96) 王焘 著，張登本，胡國臣 主編，外臺秘要方(卷28)·卒死方二十三首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2006，p.687.

(新校正云：按此條 『素問』本無，『太素』亦無，今按 『甲乙經』添入) —— 『刺熱篇』注

“爲虛爲實者，工勿失其法”<sup>98)</sup>(新校正云：『甲乙經』云若存若亡，爲虛與實) —— 『鍼解篇』注

“陰刺，入一傍四處”<sup>99)</sup>(新校正云：按 『甲乙經』陽刺者，正納一，旁納四。陰刺者，左右卒刺之。此陰刺疑是陽刺也) —— 『長刺節論』注

“肺者，氣之本，魄之處也，其華在毛，其充在皮，爲陽中之大陰”<sup>100)</sup>(新校正云：按太陰，『甲乙經』併 『太素』作 ‘少陰’……) —— 『六節臟象論』注

이상은 林億이 인용한 『甲乙經』의 글로 모두 『靈樞經』에서 나오고, 『新校正黃帝內經素問』에서 유사한 문제가 또한 적지 않다. 이를 고찰을 하지 않고 『素問』을 校補하면 송인의 착오를 다시 범하게 된다. 혹은 본말을 알지 못하고 宋本 『甲乙經』이 본래 상술한 『素問』의 글을 수록한 것이지 현행본에 탈루된 것이라고 오인한다면 착오에 착오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素問』注에서 인용한 『甲乙經』을 이용한다는 전제로 원문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 5) 『太平聖惠方』

여기에서 인용한 『甲乙經』은 모두 宋인이 校改하기 이전의 본에서 나온 것으로 비교적 높은 문헌적인 가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제99권 『鍼經』에 수록된 비교적 많은 『甲乙經』의 腧穴刺法 문자는 『外臺』에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다.

97) 王冰 注解，林億 補注，孫國中，方向紅 點校，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刺熱篇第三十二，北京，學苑出版社，2004，p.220.

98) 王冰 注解，林億 補注，孫國中，方向紅 點校，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鍼解篇第五十四，北京，學苑出版社，2004，pp.325-326.

99) 王冰 注解，林億 補注，孫國中，方向紅 點校，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長刺節論篇第五十五，北京，學苑出版社，2004，pp.329-330.

100) 王冰 注解，林億 補注，孫國中，方向紅 點校，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六節臟象論篇第九，北京，學苑出版社，2004，p.79.

## 6) 『聖濟總錄』

여기에서 인용한 대량의 『甲乙經』 문자 가운데 원서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약 200조문에 이른다. 이러한 인용문 가운데 宋臣의 注文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聖濟總錄』에서 인용한 『甲乙經』은 宋校本에 근거한 것으로 宋校本의 옛 모습을 고찰하는데 진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현행본 『甲乙經』에서 착오가 비교적 많은 小字注文 부분에 대한 고찰에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聖濟總錄』 인용문 가운데 일부 잘못을 범한 곳도 있다. 권194 「治鬼魅諸邪病灸刺法」篇에서 “旁庭二穴, 『甲乙經』云, 穴在脇堂下二骨間陷者中……”<sup>101)</sup>이라 인용하였는데, 孫思邈의 『千金翼方』 권26의 「小序」에 의거하면 ‘旁庭’혈은 秦承祖의 『明堂圖』에서 나온 것이지 『甲乙經』과는 무관하다. 『聖濟總錄』의 이 조문은 대개 『外臺秘要』 권39 「膽人」편에 붙어있는 穴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外臺』 이 권의 각 편 앞에 모두 ‘甲乙經’이라 붙여 놓았기 때문에 『聖濟總錄』의 편자가 마침내 「膽人」篇 끝에 붙어 있는 혈인 ‘旁庭’을 『甲乙經』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하였다.

## 7) 『醫學綱目』

全書는 40권이고 樓英이 明·洪武 13년(1380)에 처음 편찬하였다. 여기에서 『甲乙經』 권7~권12에 있는 대부분의 수혈주치 조문을 인용하였다. 그 인용문은 『千金要方』(宋臣의 인용문), 『聖濟總錄』에서 인용한 宋本 『甲乙經』의 문자와 서로 부합한다. 樓英이 의거한 것은 宋本이고 인용한 문자는 현행본 『甲乙經』에서 脫誤된 곳을 補正할 수 있는 곳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중시할만하다.

## 8) 其他

이밖에 楊玄操의 『八十難經』注, 孫兆의 『雞峰普濟方』, 五卷本 『銅人腧穴鍼灸圖經』注文 등에서 小字의 『甲乙經』 문자를 인용하였고 참고할 수 있

다. 明·天德사이 楊珣의 『鍼灸集書』에서 인용한 『甲乙經』 문자 가운데 3조가 현존하는 ‘六經本’, ‘明抄本’과 달라 어떤 본에 의거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明末 吳崑의 『鍼方六集』과 王曰奎의 『黃帝內經素問靈樞合類』에서 인용한 『甲乙經』 문자는 ‘六經本’과 서로 부합하고, 淸初 嚴振의 『循經考穴編』에서 인용한 『甲乙經』 문자는 ‘明抄本’과 서로 부합한다.

宋校本 『脈經』에서 인용한 『甲乙經』의 문자는 모두 林億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宋本 『甲乙經』의 옛 모습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王執中이 『鍼灸資生經』을 편찬할 때에 『甲乙經』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인용한 『甲乙經』의 문자는 『千金要方』, 『素問』 王冰注, 『太平聖惠方』, 『銅人腧穴鍼灸圖經』 등에 의거하여 옮겨 실었고, 또한 인용할 때에는 고심하여 개편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오해하기가 쉽다. 南宋시기 『幼幼新書』를 편찬할 때에도 『甲乙經』을 참고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원래 인용한 『甲乙經』 문자는 모두 宋校本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상 두 책에서 인용한 『甲乙經』을 남송 刊本인 『甲乙經』으로 간주하여 고찰해서는 안 된다.

## III. 結 論

본론을 통하여 논자는 침구의학사에 있어 대표적인 침구 전문서인 『鍼灸甲乙經』에 관한 침구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송대 林億 校本인 『甲乙經』이 北宋에서 간행된 후에 南宋, 金, 元시기에 重刊된 것을 볼 수 없고, 현존하는 최초의 간본은 明·萬曆시기 吳勉學이 校刊한 ‘醫學六經本’이다. 이 판본은 萬曆 29년(1601)에 吳勉學이 校刊한 『醫統正脈』叢書 속에 들어갔다. 현존하는 이 책은 대부분 淸代에 重修한 판본이며, 斷板과 缺字가 많아 補板한 것이 많다.

또한 明代에 있었던 ‘藍格抄’本과 ‘六經本’은 같은 저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前者의 탈오를 校補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앞뒤

101) 趙估 編. 聖濟總錄(卷194)·治鬼魅諸邪病灸刺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224.

의 체례가 다르고, 錯亂과 殘缺된 곳도 적지 않다. '四庫全書本'과 余云岫가 인용한 이른바 '嘉靖本'은 서로 부합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甲乙經』 교감할 경우에는 '六經本'을 저본으로 삼고, '明抄本'을 주된 校本으로 삼고, '四庫本'을 參校本으로 삼아야 한다. 이른바 '鈔正統本'은 문제가 상당히 많고 위조한 흔적이 뚜렷하여 『甲乙經』을 교감하는데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현행본 卷首에 실린 「序例」는 원서에 이미 있었던 것이지 林億이 새로 넣은 것이 아니다. 송대 이전의 의서에서 인용한 『甲乙經』의 문장 체계는 대부분 이 「序例」와 서로 부합한다. 宋本 『甲乙經』도 여전히 「序例」와 기본적으로 부합하지만 傳世本은 이 「序例」와 달라 후인 특히 송대 이후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고친 것이다.

3. 전세본 『甲乙經』은 적어도 4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皇甫謐이 편집한 原集, 송대 이전 의가들이 補注한 글, 송대 林億의 校注, 송대 이후의 注文이다.

4. 전세본에서 '素問曰', '九卷曰' 등으로 표시한 것과 注에 '解曰'과 같은 注解性 문자는 원서의 舊文이지 唐宋시기 사람이 증보한 것은 아니다.

5. '六經本'에서 雙行 小字注文的 절대다수가 宋人の 注文이다.

6. 전세본에는 脫文, 착간 현상이 심하고 후인이 함부로 고치고 보충한 곳도 적지 않다. 全書의 체례도 원서의 「序例」와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7. 『甲乙經』 원문을 인용한 의서에는 『千金要方』, 『外臺秘要方』, 『聖濟總錄』, 『鍼灸資生經』, 『幼幼新書』, 『醫學綱目』 등이 있다. 그러나 문헌을 채용한 방식이 크게 달라, 같은 책의 인용문이 다른 시기의 의가가 인용한 것에서 나오고(『千金要方』), 같은 책에서 앞뒤로 인용한 방식이 다르고(『外臺秘要

』), 全書의 인용문이 모두 각 의서에서 옮겨서 인용하거나 개편하였고(『鍼灸資生經』), 全書의 인용문이 어떤 책에서 모두 옮겨 인용하였다(『幼幼新書』).

이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甲乙經』의 원문을 직접 인용한 醫書를 선택하여 校定の 자료로 이용해야 校勘의 질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1.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민문화사. 2007.
2. 王燾 著. 張登本, 胡國臣 主編. 外臺秘要方 唐末金元名醫全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6, 687.
3. 陸心源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頤宋樓藏書志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443.
4. 毛扆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汲古閣珍藏秘本書目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0.
5. 楊守敬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日本訪書志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14.
6. 王冰 注解. 林億 補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79, 84, 120, 220, 257, 370, 388, 414. pp.200-201, 325-326, 329-330.
7.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8. 王叔和 著. 錢超塵 主編. 脈經 中華經典醫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539.
9. 馬蒔 著. 王洪圖, 李硯青 點校. 黃帝內經靈樞 註證發微.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29. pp.386-387.
10. 楊上善 撰注. 王洪圖, 李雲 點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 文獻出版社. 2000. p.238, 242, 284, 639.

11. 丹波康賴 撰. 王大鵬, 樊友平, 張曉慧 校注. 醫心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 142.
12.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46.
13. 皇甫謐 撰. 黃龍祥, 嚴康維 校注. 鍼灸甲乙經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43, 146.
14. 張燦理,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4, 20, 22, 25, 27, 63, 216, 273, 505, 506, 740, 887, 904, 1264, 1269, 1327, 1439, 1441, 1490, 1498, 1722, 1730, 1797, 1815, 1839. pp. 822-825, 1313-1314.
15.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183, 3224.
16. 鄧良月,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證治通鑒. 青島. 青島出版社. 1994.
17. 劉昉 撰.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舊唐書經籍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5.
18. 長孫無忌 著.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隋書經籍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64.
19.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30, 231.
20.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校.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 160, 162, 163, 186, 203, 211.
21.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交點.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163.
22. 薛清錄 主編. 中醫圖書聯合目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1. pp.128-154.
23.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873.
24.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96.
25. 景仁文化社 編. 晉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1417-1418.
26. 秦越人 著.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79.
27. 篠原孝市. 甲乙經總說 東洋醫學善本醫學叢書(第8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28.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古鈔本鍼灸甲乙經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3, 49, 50, 56, 58, 60, 64, 66, 70, 72, 74, 113, 221.
29. 皇甫謐 著. 篠原孝市 編. 六經本古鈔本鍼灸甲乙經 東洋善本醫學叢書(第7輯). 東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72, 146.
30. 皇甫謐 著. 吳勉學 校. 六經本鍼灸甲乙經 鍼灸醫學典籍大系(卷7).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78. p.3, 29, 38, 71, 95, 103, 105, 119, 141, 186, 206, 216, 319. pp.105-106.
31. 高橋征司, 篠原孝市. 皇甫謐著鍼灸甲乙經解題 鍼灸醫學典籍大系(卷1).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 53[1978]. p.109.
32. 王肯堂彙輯. 鍼灸甲乙經 醫統正脈全書(卷3). 台北. 新文風出版公司印行. 1975. p.표지.

